금수강산



9

1994



금수강산

월 간

1994년 9호(루계 제61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1면 9.9절날에
사진 박지서

표지 4면 해금강
사진 박 철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5203

국경절을 맞으며

초목은 대지에 뿌리내려 꽃피고 열매를 맺으며 민족은 조국에 태줄을 묻고 생을 이어갑니다.

그 꽃이 우아하고 그 열매 소담하려면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하듯이 민족에게 값높은 삶을 주려면 국가사회제도가 인민정권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대대손손 살아온 우리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참된 삶을 누리기 시작한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그때부터입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겼던 지난날 우리 인민이 흘린 피눈물을 합치면 아마 강물을 이룰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일제가 경영하던 평양의 사동탄광에서 하루 16~18시간의 고된 로동을 하였으나 차례지는것은 천대와 멸시 뿐이였습니다. 몇푼 안되는 로임으로 그날그날 온 식구가 죽지 못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일본경영주에게 항거했다는 리유로 십장놈에게 매를 맞고 반죽음이 되였습니다. 그 어열로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는 그만 폐인이 되고말았습니다.

기둥같이 믿고살던 아버지가 꺼꾸러지자 어머니는 온 식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지주집 아이보개, 삯바느질과 삯빨래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가정만이 당한 불행이였겠습니까. 정말이지 나라없는 사람들의 처지는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철부지였으나 조국이 없으면 인생도 무참히 짓밟힌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1948년 9월 9일 공화국선포의 노래소리가 이 땅우에 장엄하게 울려퍼진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도 밝은 웃음꽃이 피여났습니다.

누구나 다 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국가주권을 행사하며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희망을 꽃피우며 마음껏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이 고마운 인민정권하에서 나는 평양경공업대학을 결쳐 배움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나라의 어엿한 일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정사에 참가하고있습니다.

가없이 넓은 대양에도 기슭이 있고 아득히 펼쳐진 대륙에도 끝이 있지만 무한대한 우주와도 같이 끝도, 기슭도 없는 우리 조국의 품, 한없이 자애로운 그 품속에서 나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배울 걱정, 치료받을 걱정, 쓰고 살 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하기에 나는 이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어떻게 하면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는가고 늘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평양시행정경제위원회는 시민들의 세간살이를 책임진 호주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입니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를 넘으시며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께서는 80평생을 공장과 농장 길을 걸으시며 인민의 락원을 세워주시고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서거하시기 전날까지도 인민생활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습니다.

저는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유족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시안의 근로자들의 문화휴식과 군중체육활동도 충분히 보장해줄뿐만아니라 시안의 도시경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상업, 보건, 건설, 교육, 문화 등 생활의 구석구석을 다 맡아 돌보아주고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간살이를 책임진 심부름군으로서의 책임은 정말 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볼 때마다 힘이 솟고 긍지가 생깁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니 인민을 위해 꾸준히 일하고 사랑을 받는것보다 더 큰 보람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국경절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더욱 빛내여가시는 어머니 내조국을 더 잘 받들어나가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나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저 푸른 하늘 창공에 펄펄 휘날리는 람홍색 공화국기발과 더불어 우리 조국은 영원히 무궁번영할것입니다.

평양시행정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호웅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1990년 12월 16일 베를린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해외본부 결성식이 있었다.

결성식에서 발표된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통일의 지름길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이다.…

이제 우리 1천만 해외동포가 총단결하여 시련에 찬 파도를 넘어 통일의 대안에 도달함으로써 마침내 다가올 1995년을 기필코 통일의 원년으로 맞이할것이다.》

종래 세계각지에 흩어져 호상 련계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여온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운동은 범민련 해외본부가 결성되고 중국, 일본, 독립국가협동체, 구라파, 미주, 오스트랄리아 등에 산하 지역본부들을 둠으로써 믿음직한 거점을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조선동포들의 조직적련합이 이룩되게 되였다.

범민련 해외본부와 산하 각 지역본부들은 결성후 역원들과 기구들을 보충정비하고 회원대렬을 늘여나가며 조직을 확대공고화하는 등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범민련 해외본부는 1992년부터 사무국을 일본 도꾜에 설치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교류와 대화, 련대성 운동을 더욱 본격화하였다.

특히 지난해 4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몸소 작성발표하심으로써 해외동포들의 통일애국운동은 뚜렷한 방향타를 가지고 보다 확신성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 해외동포단체들과 범민련조직들은 앞을 다투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는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강령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모임들을 가지였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와 카나다지역본부,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당시 명칭은 조선통일촉진위원회), 조국통일북미주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동포 조직과 단체들은 성명과 담화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야말로 민족을 살리고 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 결의를 표명하였다. 총련은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며 강령실현을 위한 사업을 전동포적인 애국운동으로 줄기차게 벌려나갈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해외동포들의 확산되는 통일열기에 발맞추어 범민련 해외본부는 지난해에 민족대단결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조직전개하였다. 여기에는 해외각지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30만명을 목표로 한 재일동포들의 서명운동에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이 참가하여 불과 2개월밖에 안되는 기간에 32만 4천여명이 서명하였다.

범민련 해외본부는 민족주체의 힘에 의한 평화통일기운을 고조시키는데서도 큰 역할을 놀았다.

지난해 5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범민련 의장단회의와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출로는 민족대단결에 있다는것이 일치하게 강조되였으며 제4차 범민족대회와 제3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을 서울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서울길이 차단되자 해외동포들은 도꾜에 모여 제4차 범민족대회와 제3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을 성대하게 진행함으로써 90년대에 기어이 통일조국을 안아오고야말 겨레의 드팀없는 통일의지를 만천하에 시위하였다.

범민련 해외본부산하의 각 지역본부들과 해외동포단체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강연회, 과학토론회, 동포련환모임, 체육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사업들을 자주 조직하였으며 겨레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련대성을 불러일으키는 운동들도 적극 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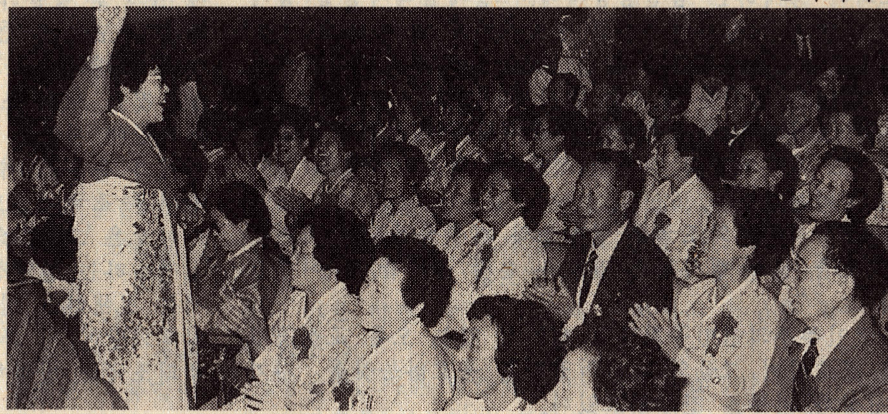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16일 북과 남, 해외의 범민련조직들은 합의에 따라 평양과 서울, 도꾜에서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것은 범민련의 활동과정에 이룩된 또하나의 거대한 성과로서 앞으로 범민련의 조국통일운동을 뚜렷한 목표와 방향에 따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보다 광범한 대중을 범민족적대진군운동에 합류시켜 90년대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해외동포들의 통일애국운동은 더 한층 고조를 이루고있다.

올해초 범민련 해외본부는 통일원년으로 약속한 1995년 전야의 해인 올해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해로 정할것을 북과 남의 겨레에게 정중히 제의하였다. 이는 전민족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지금 해외동포들은 각자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뗄수 없이 련결시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해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재중동포들

조 국

인류력사가 시작되고 국가가 발생한 이후 조국이란 말이 나온 때로부터 수천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은 조국이란 말도 많이 하였고 조국에 대한 시와 노래, 조국에 대한 글도 많이 남겼다.

어떤 사람들은 아득한 먼 옛날부터 조상들의 땀이 스며있고 선조들의 넋이 슴배여있는 정다운 땅을 조국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흘러간 생활의 잊지 못할 추억들을 불러일으키는 맑은 시내가가 있고 마을이 자리잡은 고향이 조국이라고도 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사전들에도 조국이란 조상대대로 살아온 나라 또는 자기가 국적을 둔 나라라고 하였다.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땅, 자기 인민이 사는 자기 나라 령토는 사람들의 삶의 원천이며 생활의 터전이다.

여기에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자기 선조들이 땀흘려 일떠세우고 피흘려 지켜온 물질문화의 재부들과 유산, 자기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들어있다. 그러므로 조국이라는 의미에는 언제나 선조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살아왔고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이나 나라를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조국이라는 말은 이런 뜻만을 담고있는것이 아니다.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보면 선조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살아왔고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이나 나라는 있어도 진정한 조국을 가지고있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점하고 악독한 파쑈식민지통치를 실시했을 때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소리내여 크게 우노라)의 피타는 울부짖음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사무쳤다.

우리 인민은 망국노의 쓰라린 설음을 안고 정든 고향산천에 피눈물을 뿌리며 저 멀리 이역으로, 이역으로 흩어져갔다.

그들은 오래동안 나라없는 인민으로 인정풍토 생소한 이국땅에서 갖은 민족적멸시와 탄압을 강요당했다.

일제식민지노예의 철쇄에 묶이워 신음했던 우리 인민은 참된 삶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암흑천지에서 죽지못해 살아왔다.

우리 인민의 이 모든 불행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존엄을 지켜주는 조국이 없었으며 국가주권이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1948. 9.9)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참다운 조국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지켜주고 그것을 실지 행사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우리의 조국은 또한 인민들의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준다.

우리의 조국은 후손만대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해주는 당과 인민정권,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조국이다. 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참된 삶과 행복은 오늘의 세대뿐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공부시킬 걱정, 병나도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고있다.

우리의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우리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은 그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나고있다.

하기에 지난날 망국의 한을 품고 바람에 날리는 가랑잎처럼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갔던 수많은 우리의 해외동포들이 오늘은 어머니조국의 그 넓은 품으로 달려와 안기고있다.

한두자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의 샘과 넓은 품을 가지고있는 어머니와 같이 조국은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심정 그대로 모든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하여 과거에 조국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다 조국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하며 마침내는 그 자애로운 품에 어린애마냥 울고웃으며 달려오고있다.

로련 싸할린주 조선평화통일지지위원회 위원장 권천식은 좌담회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국은 단순한 자연지리적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이 조국과의 뉴대를 끊지 않고있는것은 바로 조국이 어머니이기때문입니다. 저는 이국땅에서 태여나 근 50년을 살아오지만 한시도 조국을 잊은적이 없으며 그래서 매번 조국을 찾아오군합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 명월진에 사는 재중동포 고학순은 조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말했다.

《고향, 조국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다 정다운곳입니다. 더우기 이국땅에서 사는 저희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것은 그곳에 선조들의 무덤이 있고 사랑하는 혈육들이 살고있으며 자기가 나서자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기때문이지요. 떠날 때는 쉬이 돌아올줄 알고 떠났으나 근 40년동안 이국땅에서 살다가 환갑이 훨씬 지난 인생말년에 조국을 방문하고보니 그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조국인민들이 전후시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더미로 되였던 평양을 이렇듯 훌륭하게 건설해놓은것을 보고 조국을 위해 벽돌한장 쌓아올리지 못한 자책감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져요. 공화국은 우리 7천만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참다운 조국이라고 소리쳐 말하고싶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심장의 토로가 아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며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저 푸른 하늘 창공에 휘날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진정한 어머니이다.

본사기자 김경희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중에서

사나운 회오리

시련의 나날들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던 중중첩첩한 설령들은 저 멀리로 사라지고 피와 고뇌로 얼룩진 원정은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는 그 승리에 기초하여 혁명을 심화시킬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였다. 병마에 지친 몸을 끌고 로야령산정에 오른 나는 대원들과 함께 왕청의 산발들을 굽어보며 환성을 올렸다. 수개월동안 초연과 혹한 속에서 겹쌓인 피곤이 순간에 다 가셔지고 고향의 뒤동산에라도 와닿은것 같은 희열로 마음마저 구름처럼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왕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며칠동안 침상에서 고열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원정에서 얻은 혹한의 후유증이 또다시 나를 쓰러뜨리였던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숙반》바람에 유격구가 만신창이 되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의 침상에까지 날아들어왔다.…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에서는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있었다. 타도하는 사람들과 타도당하는 사람들사이에 모순이나 대립 같은것은 있을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도하는 사람들은 타도당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혁명대오에서 무자비하게 제거하였다. 《숙반》의 심판대에 오른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지난날 혁명을 위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쳐온 검열된 투사들이였다.

그렇다면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이 해괴망측한 《소탕전》에서 적아를 식별해낼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이다. 누구를 적으로 보고 누구를 우리편으로 보아야 하는가. 《숙반》지도부는 자기들이 처형한 수백수천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이라는 락인을 찍었는데 이런 판결을 합당하다고 보겠는가. 만일 그 판결이 합당치 않은것이라면 《숙반》사업을 지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해야 하는가.

이것은 수백수천명 혁명가들의 출혈로 무섭게 비틀거리는 동만의 현실이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기하고있던 물음이였다.

나는 몸도 마음도 다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요영구에는 나를 병마에서 건져줄만한 명의도 없었고 신통한 약재도 없었다. 그저 민간료법을 좀 알고있는 대원들이 교대로 내 머리맡에 앉아 찬물찜질을 하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할뿐이였다.

…

어느날 나는 오한을 무릅쓰고 송갑룡의 부축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대원들을 찾아갔다. 그때 내 눈을 제일 아프게 자극한것은 원정에 참가했던 전우들의 볼품없는 옷차림이였다. 초연에 그슬리고 총탄에 찢겨진 그들의 군복마다에는 전화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온 겨울 혹한속에서 생사를 같이한 전우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재봉대에 전령병을 파견하였다. 그전해 가을 북만으로 원정을 떠날 때 전문진에게 다음해에 입을 부대의 여름옷을 미리 지어놓으라는 과업을 맡기고 갔었는데 그 과제가 수행되였다면 원정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입힐수 있는것으로 먼저 스무벌쯤 골라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 당시 재봉대는 다홍왜에서 멀리 떨어진 솔밭골의 밀림속에 자리잡고있었다. 성원이라고 해야 전문진과 한성희를 비롯한 몇사람밖에 없었다. 전문진이 동녕현에서 양재기술을 조금 배우다가 나온 구대원이라면 한성희는 요영구에서 아동단사업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신대원이였다.

전령병과 함께 군복을 지고 요영구로 달려온것은 전문진이 아니라 몇달째 북만에 간 원정대를 기다리며 외진 섬이나 다름없는 솔밭골의 수림속에서 임신중에 있는 그를 정성껏 간호하고있던 한성희였다. 한성희는 앓아누워있는 나를 보자 눈물부터 쭈르르 흘리였다.

그가 지고 온 군복들을 원정대원들에게 갈아입힌 다음 나는 한성희를 재봉대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솔밭골로 돌아간줄로만 알았던 한성희가 다음날 아침 잣죽이 얹혀있는 밥상을 들고 내앞에 다시금 천연스레 나타났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물었다.

《옥봉동무, 어떻게 또 여기에 나타났소? 무슨 일이 생겼소?》

옥봉이란 한성희의 아명이였다. 그는 한영숙이라는 별명도 가지고있었다. 한성희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였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저는 어제 솔밭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성희의 말을 믿을수가 없었다. 아동단시절이나 입대후나 그는 상급의 명령지시에 불복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충실하고 순박하고 고지식한 녀성이였다. 그가 나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변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몸져누워계시는데 제가 돌아간들 문진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걱정하는 한성희의 그 웅심깊은 마음은 물론 고마운것이였다.

나는 좁쌀과 미역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한성희의 배낭속에 넣어주며 그를 달래였다.

《여기에 나를 돌봐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동무는 내 걱정을 말고 오늘중으로 당장 솔밭골에 돌아가야 하오. 동무가 가지 않으면 전문진이는 어떻게 하오? 지금이 바로 막달이라고 하는데 혼자서야 해산을 할수 없지 않소.》

《장군님, 다른 명령만은 다 집행하겠지만 이 명령만은… 간호를 해드리지 못하고 재봉대로 돌아가면 문진언

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군님, 저의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장군님께서 제일 급한 대목을 넘기고계시는 때에 녀대원들이 한명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한성희는 오히려 나를 설복하느라고 열을 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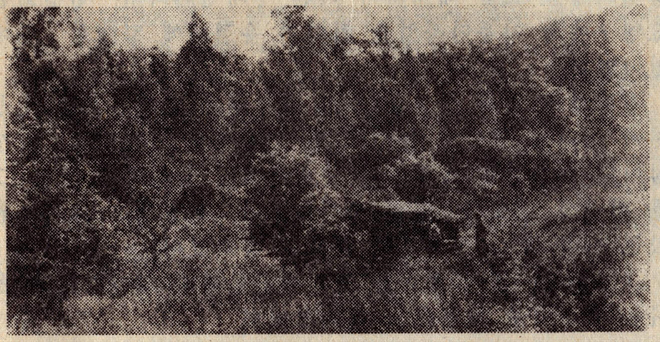
《성희동무, 부탁이니 어서 돌아가서 문진동무를 간호해주오.》

그때 리효석중대장이 한성희를 곤경에서 구원해주었다.

《대장동지, 한성희가 가도 산파구실은 하지 못합니다. 아이도 못낳아본 처녀가 어떻게 해산방조를 합니까.》

경험있는 녀자를 물색하여 보내겠다는 중대장의 말에 나는 그만 굽어들고말았다.

한성희는 그날부터 주야로 나를 간호하여주었다. 그는 끼니마다 밥상에 잣죽을 놓아주군하였다. 아마 그의 주



요영구의 오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차 북만원정에서 돌아와 한동안 머물러계시던 집

문을 받고 4중대 대원들이 요영구의 수림속에 들어가 눈속에 파묻힌 잣송이들을 주어온 모양이였다. 중대장자신도 막대기를 들고 아침마다 잣사냥을 떠나군하였다.

한성희는 자기가 간호를 잘못해서 장군님의 몸을 추세우지 못한다면 조선사람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밤잠도 자지 않고 극성스레 나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한성희가 쑤어준 그 잣죽과 사슴고기를 넣은 좁쌀죽의 덕으로 나는 사흘만에 병석에서 겨우 일어날수 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리효석중대장이 나에게 반《민생단》투쟁의 사나운 회오리가 일고있는 유격구의 실태를 상세히 통보해주었다.

그는 어느 현에서는 어떤 간부를 죽이였고 어느 현에서는 어떤 지휘관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하였는가를 일일이 례증하였다. 그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간도에서 현과 구의 지도간부들과 중대급이상 유격부대 지휘관들은 거의다 숙청된것으로 알아도 무방하였다. 조선사람치고서 글줄이나 쓰고 연설가락이나 하던 사람들은 다 잡아 없애버리였다. 북만으로 원정을 떠날 때 왕청에 떨궈두었던 우리 부대 장병들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만한 정수분자들은 다 잡아제끼였다. 미처 처형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서기요, 회장이요, 구위요 하는 자리에서 싹 쓸어버리였다.

《민생단》의 조작은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지능화의 산물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민생단》을 내온 속심은 모략과 권모술수의 방법으로 조선혁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자는데 있었다. 총칼정치를 해도 안되고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쓰고 《내선일체》며 《동조동근》을 부르짖어도 안되니 조선사람들끼리의 골육상쟁으로 혁명세력을 숙청소멸함으로써 치안유지에서 당하는 고충을 해결하려는것이였다.

9.18사변후 만주지방에서의 혁명정세의 급격한 발전에 커다란 우려를 느낀 사이또총독은 간도시찰반 성원으로 동만지방에 파견된 박석윤과 연변자치촉진회의 거두 전성호, 연길주재 만주국군 군사고문 박두영, 수급반공특무 김동한을 비롯한 친일적인 민족주의세력을 내세워 1932년 2월에 연길에서 《민생단》을 조작하게 하였다.

《민생단》은 외형적으로는 《민족으로서의 생존권확보》라든가, 《자유락토건설》이라든가,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허울좋은 구호를 들고 마치 조선사람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최고의 경륜인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실제상에서는 조선민족의 반일의식을 마비시키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모해하여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조중인민사이에 쐐기를 박아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킬것을 목적으로 일제가 만들어낸 간첩모략단체였다.

《민생단》의 반동적본질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의 《생활의 산업화》를 조선민족이 나아갈 《유일한 활로》라고 설교한 이 단체의 《조직취지》나 《강령》과 같은 문건들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적들은 조선과 만주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기간을 《생존권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절대적시기》로, 식민지통치질서의 기반밑에서 암흑의 세계로 변한 조선과 만주를 《자유》와 《자률》의 《대지》로 묘사하는 한편 간도일대에 조선인에 의한 《자유의 락토를 건설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마치도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만주강점과 식민지통치를 환영하며 간도일대에 대한 령토적야심이라도 가지고있는듯한 인상을 조성함으로써 조중인민과 조중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선린관계와 혁명적뉴대를 깨뜨려버리려고 획책하였다.

《민생단》이 철저한 반공주구단체라는것은 그 발기인이라는 사람들과 창립후 단장, 부단장, 리사의 자리를 차지한자들의 경력만 보아도 쉽사리 가늠할수 있다.

이 조직의 발기인들로서 그 성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온 경성갑자구락부 리사 조병상이나 《매일신보》 부사장 박석윤, 연변자치촉진회의 전성호, 김동한 등은 다 애국애민을 부르짖는 민족주의자, 혁명가로 자처하였으나 례외없이 일제가 오래전부터 손때를 묻혀 길들여온 반역아들이였다.

…

일본사람들은 《민생단》의 간판을 민생고의 해결이라는 구슬로 현란하게 장식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나 동만의 혁명조직들은 그 단체의 우두머리들이 일본령사관의 뒤문으로 뻔질나게 드나드는것을 인차 간파하였다. 적들은 만인의 예리한 시선앞에서 《민생단》의 정체를 오래 숨겨둘수가 없었다. 우리는 혁명적출판물들과 구두강연을 통하여 그 정체를 제때에 발가놓는 한편 반《민생단》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간판에 현혹되여 멋도 모르고 《민생단》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 조직을 인차 탈퇴하였으며 주구로 전락되여 암해공작에 나섰던자들은 군중의 손에 의해 적발처단되였다.

《민생단》은 창립후 얼마 못되는 사이에 해체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우리 대내에 《민생단》조직을 거의나 박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민생단》이 없는 반《민생단》투쟁이 계속될수 있었으며 《민생단》 아닌 사람들이 《민생단》으로 몰려 무리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수립된 간도의 유격구들에서 3년동안이나 지속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모략에 있었다.

사이또총독의 전면적인 지원과 룡정일본령사관의 적극적인 배후공작으로 빛을 보았던 《민생단》은 1932년 4월 조선주둔군의 간도파병과 함께 신임총독 우가끼의 의사에 따라 해체되였으나 그것은 형태상으로 자취를 감춘것에 불과하였다. 《민생단》은 해산되였지만 그것을 부활시키기 위한 운동은 김동한, 박두영 등을 축으로 하여 비밀리에 맹렬하게 전개되였다.

1934년 봄에 연길헌병대장 가또 하꾸지로(패전당시의 북중국특별경비대 사령관)와 독립수비보병 제7대대장 다까모리 요시는 박두영을 비롯한 친일분자들과 함께 간도의 치안문제를 다시금 협의하면서 《민생단》조직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으로 《민생단》모략공작의 두번째 단계가 시작되였다.

그들은 《민생단》조작이 만주성위산하의 동만특위를 상대로 하는 사상모략시책임을 명백히 하고 활동의 기본골자를 첫째로 《조선인유격대에 대한 강력한 자체붕괴분단시책》, 둘째로 《조선인유격대에 대한 량도차단시책》, 셋째로 《조선인유격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항귀순권고》, 넷째로 《투항귀순자에 대한 보호, 정주감시시책》, 다섯째로 《투항귀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업알선》에 두었으며 연길헌병대가 모략활동전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1934년 9월에는 《민생단》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생기게 될 《귀순투항자들을 일괄처리하며 귀순자의 배후관계, 위장귀순유무 확인, 세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기관으로 《간도협조회》를 만들어내였으며 여기에 《민생단》을 통합하였다.

김동한을 우두머리로 하는 《간도협조회》는 동만특위의 반《민생단》투쟁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여러가지 음모활동을 감행하였다.

…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의 길을 걷게 된 다른 하나의 리유는 만주성위나 동만특위, 각급 현당과 구당조직의 책임적위치를 차지하고있던 형형색색의 일부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불순한 정치적야망에 있었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대렬안에서 지도적지위를 독차지하고 상승일로의 길로 전진하고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을 자기들의 정치적야망을 실현하는데 종속시키려고 하였다면 파벌근성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지와 묵인 속에서 종파적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오로부터 사정없이 제거하고 자파세력을 확대하는데 이 투쟁을 악용하려고 하였다.

남들이 차지하고있는 방석을 가로타고 앉을 구실을 마련해준것이 바로 《민생단》이였다. 너는 《민생단》이니 자리를 내놓아야겠다거나 죽어야겠다고 선언하면 다였다. 이런 판결에는 상소가 있을수 없었으며 또 상소를 했대야 통하지도 않았다.

일제가 류포시킨 《민생단》침투설은 당과 대중단체, 군대의 모든 책임적자리를 자파일색으로 갈아치우고싶어하는 사람들의 패권주의적이며 출세주의적인 욕구에 불을 붙여주는 인화물질과 같은것이였으며 그들이 《민생단》의 이름을 걸고 올리는 천정부지의 《숙반》실적은 유격구의 혁명력량을 모조리 교살해치우려는 모략가들에게 끝없는 리득을 가져다주었다.

결국은 적아가 합세하여 유격구를 마구 짓뭉개놓은셈이다. 이런 기괴한 결탁은 세계의 어느 혁명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반《민생단》투쟁이 이처럼 파쑈국가의 군법이나 중세기의 종교형벌조차 무색케 할 정도로 황당하고 가혹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된것은 일제의 간악한 모략과 그에 속아넘어간 동만특위의 일부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암둔성과 그들이 추구한 목적의 비렬성에 기인한것이였다.

…

《숙반》의 화살은 혁명실천에서 모범적이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사람들, 아첨과 굴종을 모르고 불의와의 타협을 모르는 견실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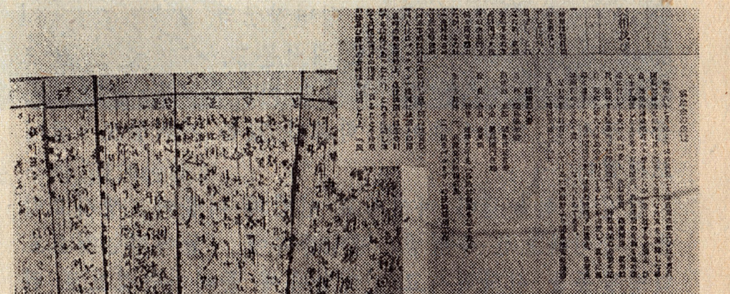
유격구의 인민들은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다 동요하였다. 혁명이라는것이 그저 그렇더라, 걸핏하면 저희들끼리 서로 죽일내기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그저 그 모양이더라, 조선사람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간도땅에서 농토도 개척하고 혁명도 개척했는데 그 선구자들을 다 잡아죽이고 줴내깔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놈의 심보인가, 이거야 령도권을 잡기 위한 숙청이 아니고 무엇인가, 권력을 위해서 지난날의 의리나 인연마저 다 저버리고 자기편을 서슴없이 학살하는것이 혁명이라면 이따위 혁명은 해서 뭘해, 이런 도깨비놀음을 할바엔 차라리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든가 하다못해 산중에 들어가 중이 되여 목탁이라도 두드리며 돌아다니는게 낫지 않겠는가고 사람들은 쓴입을 다시며 생각하였다. 반《민생단》투쟁의 미친바람은 이처럼 사람들의 인생관과 혁명관에 녹이 쓸게 하였다.

…

그래서 나는 반《민생단》투쟁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것을 동만당지도부에 제기하였다. 만주성위의 순시원도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회의소집을 발기하였다.

며칠후 나는 한장의 통신문건을 받았다. 그것은 다홍왜에서 동만지방 군정간부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한다는 통지서였다.

…



《민생단》조작의 산파역을 놀았던 박석윤에 대한 우리 법기관의 심문자료(1947년)

《민생단》과 《간도협조회》의 조작상황에 대하여 쓴 일제 비밀자료

영원한 미소

1994년 7월 19일 우리 조국은 유구한 자기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가장 비통한 순간을 보내였다.

이날 우리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눈물속에 영결하였다.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우리 수령님께서는 돌아가실수 없다고 엄연한 사실을 그리도 완강하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기적이 일어나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영상을 다시 뵙게 되기를 애타게 기원하던 사람들이 피할수 없는 상실의 아픔에 가슴을 치며 수도의 100여리 연도에 모여들었다.

오전 8시, 경애하는 수령님의 대형초상화를 앞에 모신 령구차행렬이 비애에 잠겨있는 수백만 군중들앞에 나타났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해빛같이 밝고 호탕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뵈왔다.

형언할수 없는 슬픔을 안고 우는 자식들을 웃음으로 달래시는 어버이의 모습이런가, 아니면 역경속에서도 언제나 승리를 락관하며 락천적으로 살아오신 위대한 천품이 그 모습에 비끼였는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고계시였다.

그 밝고 자애로운 미소로 통곡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 부디 잘 있으라고, 언제나 승리하며 자손만대 영원히 행복하라고 축복해 주고계시는듯싶었다.

그이께서 마지막 작별의 시각에도 웃고계시니 어버이를 더 오래 모시지 못한 자식들의 마음은 더욱 아팠고 솟구치는 눈물은 강물을 이루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보내시며 끝없이 흐느끼는 사람들의 물결속을 헤쳐가시였다.

구름같이 모여들어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인민들에게 격려의 답례를 보내시던 **김일성**광장도, 세기를 주름잡은 창조와 위훈의 기념비이며 창창한 조선의 상징인 천리마동상도 지나가시였다.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시며 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만고의 영웅, 30대 청년장군의 모습으로 인민들과 첫 상봉을 하신 개선문도, 자주 찾으시여 방바닥도 손수 짚어보시고 아이들의 머리도 쓰다듬어주시던 살림집들이며 학교가 있는 거리들도 굽어보시였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고 인민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해오신 수령님,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위대한 인생을 총화하신 수령님.

그이께서는 여전히 인민들속에서 웃고계시였다.

언제부터였던가, 우리 인민이 그이의 미소를 태양빛에 비기기 시작한것은.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새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그 미소를 자양분으로, 원동력으로 삼고 자랑찬 오늘에로 이어져왔다.

우리 인민모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그 해빛같은 미소를 우러르며 힘과 용기를 얻었고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곡절많은 인생길에서 모질게도 마음이 이지러졌던 사람들도 그이의 웃음속에 차넘치는 비범한 인품, 뛰여난 식견, 무한대한 도량에 저마다 탄복하고 매혹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인민의 하늘이시였다.

그이는 인간을 위한, 인민을 위한 사랑의 위업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여나신 사랑의 화신이시였다. 그이는 인민에게 혈육도, 가정도, 청춘도, 생명도 웃으며 바치신 헌신성의 화신이시였다. 그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슬픔과 불행, 괴로움을 다 겪으시면서도 인민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만을 보내주신 의지의 화신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전세계인류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일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위대한 어버이를 잃었다.

인류는 참으로 걸출한 위인을 잃었다.

이 세상을 통채로 준대도 아물지 않을 크나큰 상처의 아픔에 흐느껴울며 사람들은 웃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 영원히 간직하였다.

23년전 탁아소시절에 그이의 품에 안겨 애무와 축복을 받았던 한 녀성은 영결의 연도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다섯살난 저를 높이 추겨안으시고 두볼을 쓸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그때의 인자하신 그 미소는 지금도 저를 따뜻이 감싸주고있는데 어디로 가신단말입니까, 아닙니다. 안가셨습니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은 가지 않으셨다. 어떻게 우리 수령님과 인민이 갈라질수 있단말인가.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수령님도 인민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인민은 이 신념의 구호를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에, 아니 심장속에 새기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영원히 수령님의 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영원히 수령님의 조국으로 영광떨칠것이다.

본사기자 박용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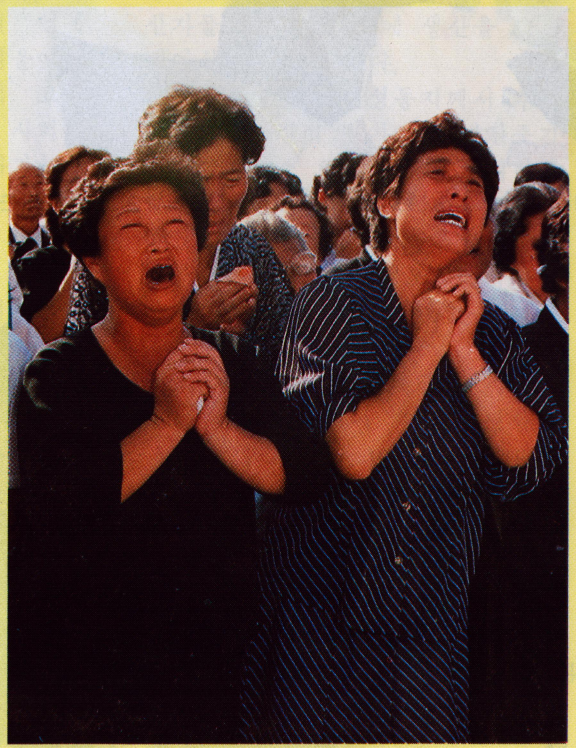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한달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평양시의 수많은 시민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드린 화환



인민의 어버이를 잃은 비통함을 금치 못해하는 평양시민들







원산시의 수많은 인민들은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안고 연복사종을 울리는 개성시민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화환을 드리는 소년단원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본사기자 남용일

인민의 절절한 마음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애타는 그리움이 날을 따라 깊어가고있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서거 한달에 즈음하여 전국의 각계층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그이의 동상을 찾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련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던 평양의 만수대언덕으로는 지난 8월 7일 오후 6시경부터 9일 아침 6시경까지의 36시간동안에만도 수도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 110만 8,000여명이 637상의 화환과 6만 2,000여개의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앞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애국가가 주악되고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 연고자들과 접견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정성껏 마련한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두볼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고락을 함께 나누셨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신 위대한 어버이, 민족의 태양을 잃은 비애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항일혁명투사 공영동지의 딸 공국옥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함께 모진 고생을 할 때에도, 어머니가 의지가지할데 없는 저를 홀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해의 여름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가셔지지 않을 슬픔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만수대언덕을 찾은 사람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숭고한 마음으로 되새겨보면서 수령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화환과 꽃다발을 드리고 묵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 한달을 맞으며 전국각지에 세워져있는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각계층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끝없이 찾아가 화환을 진정하고 간절한 그리움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추모하였다.

각지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의지를 다시금 굳게 표명하였다.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영결한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한 이후 20일동안에만도 석탄생산과 세멘트생산은 각각 1.2배이상, 통나무생산은 3.9배로 높인것을 비롯하여 철강재, 화학비료 등 중공업부문과 경공업부문, 철도운수와 농업부문 등에서 생산을 부쩍 늘여 전국적인 공업생산액을 훨씬 장성시켰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시각에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주시였다.

전력공업부문 로동계급은 있는 설비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7월하순에는 상순에 비하여 전력생산을 114%로 장성시켰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했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7월중순이후 20일동안에 그전 같은 시기에 비하여 압연강재생산을 1.4배로 늘이는 혁신을 일으켰다.

석탄공업부문의 탄부들은 헌신적인 로력투쟁을 벌려 최근 20일동안에 그전 같은 시기보다 석탄생산은 126.7%, 기본굴진은 104.2%, 준비굴진은 140.2%로 각각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철도운수부문의 근로자들은 7월하순에 7월상순보다 평균 1만 7,400여톤의 짐을 더 날랐다.

림업부문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면서 7월하순에 통나무생산을 3.9배로 높였으며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 세멘트생산자들은 같은 기간에 생산을 1.2배이상으로 늘이였다.

지난 7월초 **김일성**동지께서 주시는 과업을 직접 받아안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새형의 발전기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룡성기계련합총국, 승리자동차종합공장들에서도 대상설비와 자동차 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방직공업부문 로동계급도 7월하순에 상순에 비하여 일반천생산을 110%로 늘이였다.

농업부문 근로자들도 올해에 기어이 만풍년을 안아오기 위해 떨쳐나섰다.

곡창지대인 숙천, 문덕, 평원 군을 비롯한 각지 농장원들은 벼이삭이 패는 시기에 맞게 농작물의 비배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10대강령의 기치높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10대강령에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7천만 동포들의 숭고한 념원이 구현되여있다.

범민련 북측본부에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받들고 그를 관철하여 90년대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왔다.

북측본부에서는 범청학련 북측본부와의 련합총회를 열고 10대강령관철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으며 해내외 동포들과 범민련조직들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강령의 진리성과 정당성, 광폭성을 깊이 해설선전하기 위한 강연회와 연구토론회들을 각지에서 활발히 벌리였으며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한 해설선전사업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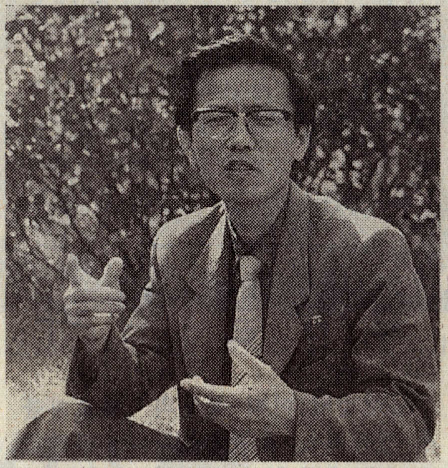
특히 잡지 《민족대단결》을 발간하여 북측본부의 활동과 우리 겨레의 애국충정, 통일의지를 내외에 널리 소개하면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련대를 강화하는 사업도 힘있게 벌렸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은 오로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과 통일애국운동단체들이 서로 련대하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굳게 뭉쳐나갈 때에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로부터 북측본부는 범민련운동의 근본리념에 맞게 남과 해외의 범민련조직들과 통일애국운동단체들과의 공동활동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5월말 해외에서 의장단회



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평양과 서울, 도꾜에서 비록 분산개최하기는 하였지만 제4차 범민족대회를 민족의 통일연으로 성대히 벌림으로써 7천만 겨레의 통일의지를 다시한번 과시하고 그 과정을 통해 지역간의 련대를 보다 강화해나갔다.

그리고 지난해말에는 남조선에서 범민련의 애국활동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 어떤 폭압과 모략으로써도 범민련의 통일대행진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는 고발장을 발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실행위원들과 남녘동포들에게 련대를 표시하고 고무적힘을 안겨주었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분렬와해책동으로부터 범민련을 고수하기 위한 힘있는 련대투쟁을 통하여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세상에 발표한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수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북측본부는 1994년을 《민족대단결의 해》로 할데 대한 해외본부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를 진행하고 겨레의 통일열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발표 1돐에 즈음하여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의 연구토론회를 가진것이 그 한 실례로 된다. 토론회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야말로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의 통일을 가져오기 위한 길을 명시한 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온 민족이 10대강령의 기치 높이 들고 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지난 4월에는 해내외동포들의 민족대단결음악회를 윤이상음악당에서 가지였다.

음악회에는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 예술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음악회무대에는 재일, 재중,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예술인들과 평양시내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는데 혼성합창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가》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부른 《통일무지개》, 《통일아 너를 부르며》, 《범민련통일가》, 《통일원무곡》 등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9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한결같은 의지를 더욱 높여주었다.

겨레가 함께 내세운 95년통일원년을 한해 앞두고 북측본부는 제5차 범민족대회를 기어이 북과 남, 해외가 한자리에 모여앉는 통일대잔치로 성사시키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90년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리정표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남과 해외의 조직들과 굳게 손잡고 통일의 새 아침을 불러오는 려명의 타종봉, 민족대단결의 전위기수로서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범민련 북측본부 위원 리준하

민족의 대통운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슬픔에 모대기며 오열을 터뜨리던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억세게 살며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한 계승자로, 미래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려는것은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르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진 확고부동한 신념이였고 절절한 념원이였다.

함경남도 영광군 자동리에 솟아있는 장산의 양지바른 산비탈면에는 키높이 자란 한그루의 구호나무가 서있다.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미래의 태양을 맞이한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 부둥켜안고 울고웃으며 웨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목소리인가.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기약하는 《백두광명성》을 우러러 만민이 드리는 다함없는 축복인가.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백두의 정기를 타고 탄생하신 희세의 위인 **김정일**동지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우러러 칭송한 투사들과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불멸의 글발이다.

주체의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신것과 함께 **김정일**동지를 맞이한것은 유구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경사였고 대통운이였다.

하기에 투사들은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아름드리나무들에 불멸의 글발로 아로새겨 만방에 격조높이 구가하였던것이다.

《동포여 보느냐 듣느냐 백두산에 김대장 뜻 이을 광명성 솟았다》, 《아 조선아 백두산에 백두광명성 탄생》, 《태양같이 천만대 길이 빛나라 조선의 백두광명성》…

백두산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각지에서 발굴된 이런 혁명적구호문헌들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영광과 긍지, 일찍부터 친애하는 그이를 위대한 수령님의 계승자로 우러러 칭송한 항일투사들과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과 념원을 뜨겁게 읽을수 있다.

지난 6월 25일, 《로동신문》에는 남조선에서 위대한 령도자의 탄생을 축복하는 50년전의 구호석이 발견된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의 경북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리 아무개 로인이 반세기동안 고이 간직해온 구호석 《조선아 만방에 자랑하자 **김일성**장군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 1944.》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이 반세기전에 벌써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드팀없는 신념으로 자리잡고있었음을 보여주는 글발,

총칼로써도 막을수 없고 철쇄로써도 묶을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지닌 인민들이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보내온 글발들에 《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시리》, 《민족운명의 수호자 **김정일**장군님》, 《**김정일**장군 받들어 90년대 통일을》 등 신념의 웨침을 새길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행운은 자기들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드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온 나라 인민들은 지금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지금 내 심정은 20대의 청년장군으로서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옵던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소.

참으로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받고있는 인민이요.》

걸출한 위인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항일의 로투사가 웨치는 목소리,

그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통된 심정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양양하며 우리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인민의 지도자

대 담

수도 평양의 만수대예술극장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척되여 어느덧 극장본체가 이미 기본상 완공되고 모든 건설력량이 바야흐로 극장앞마당에 설치할 대공원과 분수조각에 집중되기 시작한 때였다.

건설장은 별안간 숨막힐듯한 팽팽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1976년 8월 18일 미제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일으킨 도발사건으로 하여 순식간에 초긴장을 이룬 정세가 온 나라에 조성되였던것이다. 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남조선강점 미군에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일본과 미국본토에 있는 전투추격기대대와 전투폭격기대대, 전략폭격기부대들에 긴급출동령을 내림과 동시에 《특별기동함대》를 무어 조선주변해협에 출동시켰다.

전쟁의 검은 구름은 삽시에 우리 나라 땅과 하늘, 바다를 뒤덮었으며 온 나라가 위기일발에 이르렀다.

그 어디에서든지 불꽃만 튀면 그것은 쉽사리 그리고 즉시에 전면전쟁에로 확대될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일으키려는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고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조선인민군 모든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의 전체 대원들에게 전투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온 나라가 일시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간 초긴장속에서 만수대예술극장 건설장에서는 누구도 건설공정을 돌아볼 정신적여유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기세좋게 다그쳐오던 극장건설은 자연히 걸음을 늦추기 시작하였다.

극장앞에 건설되는 공원에 설치할 자연바위를 캐러 동해지구에 파견되였던 장식미술가들도 불리워 들어왔다.

모두가 가슴조이며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고있는 때에 책임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전화를 받게 되였다.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만수대예술극장 건설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그만 말문이 막혀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는 한참 망설이던 끝에 간신히 실태를 보고드리였다.

《금강산에 간 미술가들도 돌아왔단말입니까?》

그이께서는 놀라서 물으시였다.

《그러면 공원건설은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준전시상태에 대해서는 념두에 없으신듯하였다.

《그게 어떤 사업이라고 중단시킨단말입니까?》

너무도 상상밖으로 그이께서 말씀하시기에 일군은 어리둥절하였다.

온 나라가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이때 그이께서 이 문제를 두고 그처럼 나무라실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물론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합니다. 온 나라가 준전시상태로 넘어간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며 그것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거창하고 위대한 사업을 순간도 멈출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인민들의 심장속에 심어줄 이 충성심이야말로 그 어떤 형태의 최신무기로도 누를수 없는 가장 위력한 혁명의 무기라고 하시면서 전쟁광들이 눈이 뒤집혀 날뛰고있는 이때에 조선동해안의 바위돌을 떠옮겨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온 세상에 떨치는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이며 대조적인 일인가고 강조하시였다.

《우리가 〈세계최강〉을 호언하는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였고 오늘도 그놈들과 당당하게 맞서싸워 걸음마다 승리하고있는것도 바로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이러한 충성심이 간직되여있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래일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밤 12시까지는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건설장에 나가보겠다고 하시였다.

진지를 차지한 전연부대들과 후방기지들에서 시시각각으로 엄중해지는 위급한 정황보고들이 들어오고있는 그 준엄한 시각, 그이께서는 친히 만수대예술극장 건설현장으로 나오시였다.

곳곳에 숨을 멈춘 기대들과 쌓다만 돌무지들이 한산하게 널려있는 건설장의 형편이란 참으로 말이 아니였다.

책임일군은 저려드는 가슴을 안은채 그이께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이께서는 일군을 그윽히 바라보시며 너그러운 음성으로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동요하지 말고 공사를 계획대로 내밀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서리발 이는듯한 시선으로 먼 남녘하늘을 바라보시며 힘있게 지적하시였다.

《놈들이 제아무리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려도 우리는 제 정신을 가지고 비상한 건설속도로 그에 대답할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조선의 긴장한 정세를 두고 세계가 주시하며 손에 땀을 쥐고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호협한 기개와 태연자약성, 담대성을 그대로 온 세상에 보여주며 돌과 나무를 실은 자동차행렬이 평화롭게 평양으로 들어서고있었고 수도의 거리 한복판에서는 원쑤들에게 주는 대답인듯 아름다운 공원속에 웅장화려한 만수대예술극장이 장엄하게 일떠서고있었다.

김정일령수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가리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민족의 최고령수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통일성업을 이룩할 의지와 신념을 굳건히 다지고있다.

지난 7월 20일 남조선의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의 한 공공건물벽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흠모하는 글이 씌여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 벽서에는 큼직큼직한 글씨로 《단군민족의 한울님 **김정일**령수 받들어 통일조국 세우자!》라고 씌여져있었다.

흠모의 글발은 무려 5시간동안이나 그대로 있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북돋아주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학자들이 지난 7월 21일 시국토론회를 열고 민족의 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통일성업에 한몸바칠 결의를 다지였다.

시국토론회에 참가한 서울대학교의 박 아무개 정치학교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특색있게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하면서 그분의 유지와 유훈을 받들어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을 90년대 통일실현에로 선도하는 선각자가 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천하대세를 한순간에 꿰뚫어보시는 명견만리의 예지로 통일진로를 명시해주시고 한세기도 아닌 20세기와 21세기라는 량대세기를 한세대에 이끌어 빛내이실 하늘이 낸 또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령수를 충효쌍전으로 받들어모시고 따를 때 조국의 통일도 민족의 무궁번영도 기필코 성취되고야말것이라고 했다.

이날 시국토론회참가자들은 《한국》민중의 일치한 의지를 담아 길이 4.15메터, 너비 2.16메터의 명주천에 《**김정일**령수 받들어 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두줄로 된 혈서를 남겼다.

뿐만아니라 지난 7월 25일 전라남도 광주시의 시외뻐스주차장에 《통일애국청년회》 명의로 된 흠모의 현수막이 나붙어 오가는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길이 2메터, 너비 30센치메터로 된 흰색바탕의 상단에는 《7천만 겨레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은 우리 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이 씌여져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받들자! 단군민족의 하늘 따르자! 통일대통령 **김정일**지도자님》이라는 글이 붉은색으로 씌여져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글을 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남조선 각지에서 광범히 진행되고있던 지난 7월 20일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한 가게방의 건물벽에 《통일연구학회》의 명의로 된 선전물이 나붙어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선전물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님을 받들어모시고 주석의 생전의 뜻을 꽃피우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자고 씌여있었다.

7월 27일 새벽 괴뢰군 《제1전투비행단》 주둔지로 가는 도로상에 길이 5메터, 너비 1.5메터의 대형 현수막이 《애국군인동지회》의 명의로 걸려있었다.

회색바탕의 현수막에는 밤에도 볼수 있게 야광띠가 둘러져있었는데 현수막의 상단에는 황발광색의 굵고 활달한 필체로 《우리에게는 문무충효를 겸비하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라는 글이 돋보이게 씌여있었다.

그 아래에는 진청색으로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더이상 미군의 용병이 되지 말자.

〈문민〉파시스트 김영삼일파의 반북히스테리소동을 짓부시자!》라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또한 그 뒤면에는 록발광색의 활달한 필체로 《무적필승의 **김정일**장군님 향도따라 통일성업 이룩하자!》라고 씌여져있었다.

현수막은 여러시간동안 걸려있었다.

한편 현수막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길이 9센치메터, 너비 6센치메터의 인쇄물이 《제1전투비행단》 사병들이 있는 막사주변과 부근마을에 살포되였다.

현수막과 인쇄물을 본 사병들과 주민들은 우리 단군민족의 걸출한 령수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본사기자 조광열

대담

《조선은 나의 조국입니다》

얼마전 본사기자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대보동에서 살고있는 조선옥로인(67세)을 만났다.

기자 : 우리는 할머니가 일본인녀성으로서 오래전에 남편을 따라 조선에 온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선옥 : 예, 저의 고향은 일본 오사까이고 본명은 가또 도세꼬입니다. 1950년에 조선사람인 하일경과 결혼하고 1961년에 제55차 귀국선으로 공화국에 왔습니다.

기자 : 실례인것 같습니다만 두분이 결합되던 경위를 말씀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조선옥 : 제가 남편을 알게 된것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해인 1941년부터였습니다. 당시 녀자고등학교 재학중이던 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군수공장에 끌려가게 되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고 그후 여러해동안 사귀게 되였습니다. 그는 건축에 뜻을 두고 고학으로 전문학교를 나왔으나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해서 취직조차 못하고있었습니다.

불우한 식민지청년의 정상에 몹시 동정이 가더군요. 저역시 가난한 막벌이군의 딸로 태여나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민족은 다르지만 처지의 공통성이라할가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두사람을 하나로 결합시켜주었습니다. 서너평방밖에 안되는 초라한 판자집에서 변변한 이부자리도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우리 부부사이는 더할나위없이 다정했답니다. 귀여운 자식들도 태여나구요.

기자 : 일본땅을 떠나올 때의 감정은 어떠했는지요?

조선옥 :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실현은 일본땅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갖은 민족적 차별과 수모를 받아온 남편은 한시바삐 조국으로 가고싶어했습니다. 저는 오랜 생각끝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은 내가 태여난곳이였지만 돈없고 권세없는 나같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인생의 보금자리가 아니였습니다. 더우기 민족적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고르롭게 사는 조선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나로하여금 모든 주저와 우려를 이겨내게 하였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자 : 조선에 와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조선옥 : 이곳에서의 생활은 나의 결심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확증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귀국하자마자 평양시 중심구역에 새 집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희망대로 중앙표준설계사업소에 배치되였구요. 저녁이면 환희에 넘친 얼굴로 집에 들어서는 남편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사람이라는 자체모순에 빠져 이웃들과 잘 휩쓸리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구역의 일군들과 이웃녀인들이 저의 집에 찾아왔더군요. 친혈육들처럼 우리 생활을 하나하나 념려해주고 저와 자식들의 장래까지 의논해주는 그들의 진정에서 저는 일본땅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인간상, 사회상을 보았습니다.

이 고마운 사람들,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무엇인가 보답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저녁 저는 남편에게 나도 조선공민으로 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저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더군요. 저는 공화국의 공민증을 받으면서 참된 조선의 딸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조선옥이라고 고쳐지었습니다.

제가 평양완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자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저를 무척 아껴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나라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여러차례 표창과 국가수훈도 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매일 매시각 사는 보람을 느꼈고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혜택으로 년로보장을 받으며 손자손녀들의 재롱속에서 여생을 즐기고있습니다.

기자 : 보통강구역안의 주민들은 할머니를 《애국자할머니》라고 부르더군요.

조선옥 : 한일도 없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저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왔을뿐입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재능있는 설계가로 자라났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까지 지녔던 남편은 1973년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받아안은 은덕에 보답 못하고 가는것이 한스럽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중요대상건설과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적으나마 성의를 표시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저희들의 이 조그마한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고 저를 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에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제가 이런 행복, 이런 영광을 받아안을수 있었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공화국은 저의 삶을 꽃피워준 어머니의 품이며 진정한 조국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깡그리 다 바칠 결심을 더욱더 가다듬고있습니다.

기자 :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옥의 가정

변할수 없는것

사람의 일생에는 충격적이고 교훈적인 일들이 적지 않다.

한 가정의 주부에 불과한 내가 구태여 펜을 들고 이 글을 쓰게 된것도 바로 나에게 깊은 사색을 가져다준 사연에서부터 비롯된것이다.

내가 친척방문객으로 중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흑룡강성 계동현 계림향에서 삼촌, 고모, 조카들과 만나 오래간만에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며 뜻깊은 나날을 보내였다.

그러던 어느날 고모의 생일이였는데 삼촌과 조카들은 멀리 조국땅에서 국경을 넘어 찾아온 나를 축하하는겸 동네의 동포이웃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생일연회를 차렸다.

풍성하게 차린 상우에는 이국에서도 민족풍습을 이어가는 동포들의 넋이 그대로 비낀듯 찰떡, 송편, 절편, 도라지채, 참나무버섯볶음, 오이채, 갓김치, 배추김치 등 구미를 돋구는 민족음식이 구색에 맞게 올랐다.

이어 주거니받거니 술잔이 오고가며 젊은이, 중년, 초로의 남녀들과 머리 흰 늙은이들이 즐겁게 회포를 나누더니 주흥이 한껏 돋구어졌다.

이때 마을의 활동가로 불리우는 한 중년부인이 분위기에 어울려 노래 《녀성은 꽃이라네》를 흥겹게 불렀다. 그의 노래에 이어 저마끔 기회를 타서 자기가 애창하는 노래를 불러가며 즐기였다.

혁명가요 《총동원가》, 민요 《도라지》, 조선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노래 《꽃사시오》 그리고 전시가요들…

참으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복잡다단한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감회도 새로운것이였다.

그러는속에 곁에 앉아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먼길을 오느라 수고했소. 우리 동생도 함흥에서 살고있다오. 정말 보고싶소. 혈육의 정이란 어쩔수 없는거라오. 하지만 더욱 그리운건 내가 살던 고향이요. 어째 그럴가?!…

고삭은 벼짚지붕이 푹 드리운 소박한 그 고향집, 아, 그게 왜 그렇게 그리울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푸성귀냄새, 그을음이 낀 어스레한 부엌, 또 장독대곁에 앉아 졸던 누렁이, 황토길에 쩔렁이던 소방울소리…

그리움도 도를 넘으니 미칠것 같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선다오. …》

이렇게 말끝을 흐리던 그는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슬며시 닦는것이였다.

애쉶은 그의 진정에 내 가슴도 달아올랐다.

얼마나 뜨거운 애향심, 애국심인가.

그의 말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풍채좋고 익살을 잘 부리군하던 한 녀인이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바인 또 그 말씀이시군요.… 정말이지 고향을 생각하면 세월이 달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피줄속에 북소리, 징소리가 살아와서 나중엔 목이 꽉 메여와요.》

진정 그들의 추억은 한생토록 따라오는 고향과 민족을 보는 정찬 눈길이 아닌가.

나역시 어린 시절의 고향풍경을 잊을수 없다.

사람들과 언어, 정과 풍속, 초목과 계절의 설레임, 어느것이나 감미롭고 벅찬 모습이였다. 그 들망아지시절의 인상과 체험은 오늘도 또렷한 청사진으로 남아있다.

알게모르게 취미와 성격의 기초를 마련해준 그것들은 오늘을 대비적으로 조명하며 생활에 살뜰한 미소를 보내준다.

이날 내가 또 한번 충격받은것이 있었다. 그들의 애달픈 감정세계를 바꾸어보려고 내가 멋들어진 민요를 한곡조 불러넘겼더니 눈물을 흘리던 여러 동포들이 젖은 얼굴 그대로 훌쩍 일어나 조선춤을 멋지게 추는것이였다.

어쩔수 없는 내 겨레, 우리의 피줄이였다.

몇몇 젊은이들이 현대가요와 타령, 민요를 장고와 새납에 맞추어 부르니 상주위에 민속춤판이 벌어졌다. 동포들의 눈엔 웃을 때에조차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고국에서 찾아온 나를 만난것이 그들에게 그렇게도 애향심과 민족정신을 새삼스레 불러일으킬줄은 몰랐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몇해전 여름 조국에서 진행된 국제평화대행진에 조선옷차림으로 징소리를 울리며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들과 민족연희로 한껏 신명을 올리고 투쟁의 거리로 달려나가던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떠올랐다.

민족적인 그 기개 얼마나 장한가.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는것도 무섭지만 정신이 망하는것은 더욱 무섭다고 하였다.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도 세울수 없고 민족도 지리멸렬할수밖에 없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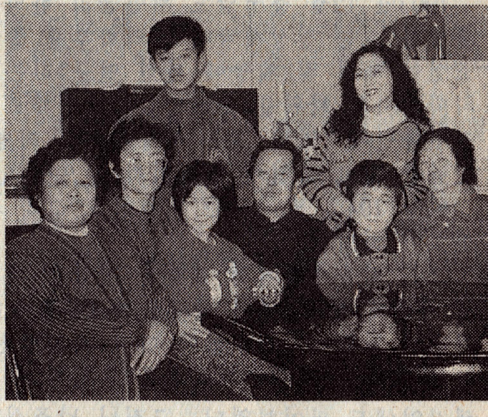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 민족은 왕성히 살아있다.

반통일세력들이 아무리 온갖 마취제와 덫과 감언리설로 영구분단을 꾀하여도 동포들은 민족정신으로 견결히 저항하고있으며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굳게 뭉쳐가고있는것이다.

승자는 민족이다. 민족은 영원하고 외세는 한 계절에 날뛰다가 스러지는 풀메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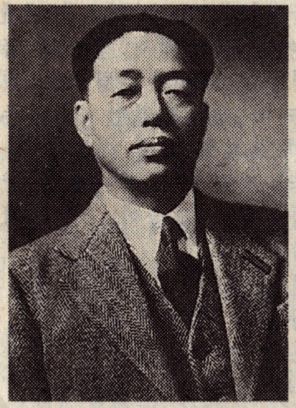
나의 눈앞에는 우리 7천만 겨레가 조국통일의 광장에서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 그날의 광경이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2동 7반 박금희



중국의 친척들과 함께 (왼쪽으로부터 두번째 박금희)

초대보건상 리병남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여있다.

《공화국의 초대 내각성원들중에는 리병남이라고 부르는 보건상이 있었다. 그는 해방전부터 소아과계통에서 의료활동을 꾸준히 벌려온 이름난 박사이며 성실하고 량심적인 애국자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자주 회고하신 리병남은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가?

위인의 품에 안겨

1948년 9월 새로 조직된 공화국정부의 첫 보건상으로는 남조선에서 개인의사로 일하던 무소속출신인 리병남이 임명되였다.

《무엇이라구, 아니 무소속출신이 보건상이 되다니?!》

그때 많은 사람들속에서 이런 의혹과 감탄이 섞인 말이 오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는 보건상으로 임명된후 11년간 활동하였다.

그때 당사자인 리병남도 이 꿈같은 현실을 놓고 자기의 인생행로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1903년 12월 충청남도 천안군의 한의를 하는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후 《청소년기 조선인 체격 및 체능에 관한 연구》라는 론문을 발표하여 의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수재로 소문났지만 식민지민족인테리였던 그는 서울에서 《리병남소아과의원》의 간판을 걸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해방(1945. 8. 15)은 되였어도 그의 운명에서는 달라진것이 없었다.

그는 서울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미군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던 관계로 체포구금되고 교수직에서 쫓겨나게 되였다. 할수없이 다시 개인병원을 차려놓은 그는 애국적인 민주주의운동을 후원하는 한편 여러 사회단체사업에도 관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어지러운 정국을 살피면서 정치일선에 나서기를 꺼려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혁명에는 중간이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시비중상하였다.

아직 뚜렷한 정치적신조가 없었던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게 살았다.

이무렵 그는 북에 갔다온 여러 사람들과 평양방송을 통하여 남조선과 판이한 북의 현실을 알게 되였고 드디여 북행길에 오르는 용단을 내리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리병남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에게 보건상의 중임을 맡겨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였다.

보건상으로 된 그는 모르는것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애썼다.

리병남이 보건상이 된데 대하여 시기가 난 남조선반동들은 서울시 학무국장을 하던 그의 형을 철직시키고 서울에서 살던 그의 가족까지 끌어다 박해하며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공화국에서는 리병남의 가족들을 구출하여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었다.

가족들과 상봉하던 날 그는 이렇게 맹세를 다지였다.

《**김일성**장군님은 나의 운명의 은인이시다. 내 한생 그이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리라.》

그는 그후 언제나 그날의 맹세를 안고살았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말 어느날 리병남은 서울에 나가 부상병들의 치료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

전쟁이 가렬해지고 부상자들이 늘어나자 어디서나 요구되는것은 의사와 약품이였다.

하루빨리 의료일군대렬을 꾸려야 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었지만 《반공》선전에 속아 거의가 깊이 숨어있는 형편이였다.

서울에 도착한 리병남은 수많은 의사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공화국의 인민적시책과 그 품에 안긴후의 자신의 보람찬 생활을 감명깊게 들려주면서 애국애족의 길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가 찾아가지 않은 병원이란 거의 없었다. 그때 해방전 서울에서 소아과의원을 하던 리병남을 잘 알고있던 한 의사는 그사이 어디에 갔는가 했더니 **김일성**장군님의 부하가 되여 왔다고, 인재도 위인의 품에 안겨야 빛이 난다는 말이 옳다고 하면서 의용군으로 탄원하였다.

리병남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그후 500여명의 의사, 약제사들이 인민군대를 따라나서게 되였고 그들로 군의소, 후방병원이 조직되게 되였다. 문을 닫았던 개인병원들과 약국들이 개업하고 그중 많은것들이 국가보건기관에 소속되여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하여 서울시에서만도 짧은 기간에 800여명의 부상병들이 완치되여 전선으로 떠나게 되였다.

그때 공화국의 품에 안겨 지금 보건기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고있는 서울출신의 한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리병남보건상은 개인의사였던 우리들에게 재생의 눈을 틔워준 동지이고 선배입니다. 그를 따라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기에 오늘의 보람찬 삶이 있는것입니다.》

참다운 인간상

1950년 9월부터 리병남은 조선인민군 군의국장을 겸임하고 중장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았다.

거듭되는 신임을 받아안을수록 그는 더욱 분발하여 일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승산이 없게 된 미제는 국제법과 세계여론도 무시하고 1951년부터 세균전과 독가스전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시작하였다. 군대와 인민의 생명이 커다란 위험에 처하였던 이 시기에 그는 국가비상방역위원회 부위원장, 권위있는 의학자로서 보건일군들과 함께 반세균전의 앞장에 섰으며 미제의 세균자료들을 조사장악하여 세계의 면전에서 폭로규탄하였다.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는데서 그의 공로가 컸다.

그는 그후 전쟁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데 자기의 힘과 재능을 다바치였다.

하여 그는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고 1952년 12월에는 조선로동당원이 되였다.

전후에도 그는 보건기관들과 연구소들을 복구정비하고 각종 질병들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는 보건상의 직무를 그만둔 다음 의학과학연구사업을 할 때는 물론 1977년 2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생동안 자기를 믿어주고 키워준 당을 받들어 참답게 일하였다.

운명직전에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혜는 백골난망이다. 너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모시여야 한다.》

리병남은 갔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그를 추억하군한다. 그의 인간상을 말해주는 일화는 많다. 사람들은 그를 정직하고 성실한 인간, 물욕과 사심을 모르는 인간이라고 회상한다.

해방후 어느날 분계선을 넘어와 평양에서 갓 살림을 시작한 그의 가족들이 서울에서 가지고온 약을 시장에 가지고나가 팔아 가장집물을 사려고 하였다. 그날 그는 안해에게 《나는 지금 개인의사가 아니라 장군님의 전사요.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로 차차 살림을 꾸려야지 매매행위를 해서야 되겠소. 그 약은 국가병원에서 요긴하게 쓰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서 고가약을 모두 병원에 보내주었다.

조국해방전쟁초기 애국적인 군기헌납운동이 벌어질 때에는 자신이 애용하던 금시계를 나라에 바치였으며 전후에는 물론 전쟁시기에도 터밭에서 농사를 지었고 닭, 토끼, 돼지, 염소를 길러 인민군대와 이웃들에 보내주었다.

리병남의 맏아들과 맏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자식들을 장하게 여기던 그는 그때 전사자수속을 하려고 하는 안해에게 《광복전에 숱한 자손들을 잃으신 만경대의 조부모님들을 생각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무슨 특전이나 대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외국에 여러번 갔다왔지만 언제한번 색다른 물건에 눈을 팔지 않았으며 매번 려비를 남겨 나라에 바치였고 보건상의 직책에 있으면서 공화국의 학위학직을 쉽게 받을수 있었으나 다른 학자들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은 제외하였으며 70살까지 년로보장수속을 하지 않고 일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그리울 때마다 자식들을 데리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았으며 손자의 이름도 만경이라고 지었다.

그는 운명직전에 자신의 사업수첩을 정리하여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풍모를 담은 수백매의 글을 남기였다.



리병남의 자녀들

리병남이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신다.

리병남과 그의 안해 박용숙은 신미리애국렬사릉에 합장묘로 안치되여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그의 자손들의 삶도 빛나고있다.

지금 그의 세 아들은 과학연구기관과 병원, 화학공장의 기술일군으로, 두 딸은 봉사기관의 당일군, 보건일군으로 일하고있다.

본사기자 로명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7)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원리의 다른 하나는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밝혀주는 이 원리에서 우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이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운동인가, 력사발전의 근본방향은 무엇인가, 사회력사는 어떤 로정을 거쳐 발전하는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에 맞게 활동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옳은 해답을 얻을수 있다.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 이 원리는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원리와 밀접히 련관되여있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원리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력사의 대하는 어데로 흘러가는가.

사람들은 흔히 력사를 흐르는 강물에 비유한다. 이것은 결코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강물은 청산의 계곡과 넓은 들을 누비기도 하며 도시와 마을을 지나기도 하면서 쉬임없이 흘러간다. 강물은 때로는 격랑을 일으키며 사품쳐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없이 고요히 흐르기도 한다.

력사의 흐름도 마치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암흑의 시대를 거치기도 하고 때로는 문명개화의 시대를 거치기도 하며 때로는 잔잔한 물결과 같이 조용히 흐르기도 한다.

매개 나라 력사를 놓고보면 우리나라의 대동강과 애급의 나일강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강의 흐름새가 다르듯이 그 흐름이 같지 않다.

그러면 강물과 같이 쉬임없이 흘러흐르는 력사의 대하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입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다.

그로부터 력사의 대하는 강물이 망망한 대해로 흘러가듯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쉬임없이 흐르고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창조적 로동과 투쟁으로 사회를 한걸음한걸음 발전시켜왔다. 그리하여 인류사회는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에로,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로 바뀌여졌으며 오늘에 와서는 벌써 수많은 인민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살고있다.

이 력사적과정에 인민들은 자연을 놀래우리만치 변경시켰으며 거대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여놓았다.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인민들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 그처럼 거창한 일을 해온것이다. 이것은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 사람을 개조하여온 투쟁의 력사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력사적운동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혁명운동이고 력사를 전진시키는 가장 주되는 운동이 혁명투쟁이기때문에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를 옳게 리해하자면 혁명투쟁에 대한 좀더 깊은 리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이전에는 물론 오늘에 와서도 세계적범위에서 보면 사람마다 옳은 리해를 가지고있는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민대중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또 그러한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혁명이라면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혁명이라면 덮어놓고 무엇을 두들겨마스는 일로 생각한다. 하긴 지난 시기 혁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가운데서도 혁명의 옳은 리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청산》이요, 《타도》요 하면서 망동을 부린자들도 있었으니 이런 《혁명가》들의 행동만을 보고 리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면 혁명을 두려워할수도 있다.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이 없기때문에 혁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혁명의 이름을 도용하는자들도 있다.

례하면 제국주의앞잡이들은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진보적나라 정부들을 뒤집어엎는 《군사정변》에 혁명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붙이고있다. 그러니 혁명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는것은 가짜혁명을 반대하며 진짜혁명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다.

혁명투쟁은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진다. 혁명투쟁에는 사회제도의 교체를 가져오는것도 있고 사회제도의 교체를 가져오지 않는것도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지는 혁명투쟁은 해결하려는 과업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모든 혁명투쟁에는 하나의 공통성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이다.

지난날 인민들이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한것도 그렇고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한것도 그렇고 또 제국주의식민지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한것도 그렇고 그것은 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면 왜 혁명투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는가.

그 리유는 사람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람이 벌리는 모든 활동은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로동활동이나 사회정치활동이나 할것없이 사람의 모든 활동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혁명투쟁도 결국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여기에 바로 혁명투쟁의 근본목적이 있다. 그래서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의 옻칠공예

옻칠공예는 동양의 고유한 천연수지락크공예이다.

조선의 옻칠공예가 진귀하고 고급한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것은 기본재료인 옻칠의 우수한 특성에 있다. 옻칠은 옻나무에서 채취한 진을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천연칠감이다. 가공된 옻진은 부착력이 세고 습기와 높은 열, 산알카리에 견딤성이 매우 강하며 광택이 특유하다.

옻은 조선, 중국, 일본, 웰남을 비롯한 아세아의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특히 우리 나라의 평안북도 태천지방의 옻은 옛날부터 부드럽고 윤택이 잘 나며 질이 좋은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태천지방의 지리풍토적조건과 옻가공기술의 오랜 력사와 관련된다.

조선옻의 우수성은 삼국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들에서 나온 옻칠공예품들과 칠그림들 그리고 일제가 략탈하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한 《국화넝쿨무늬 자개박이경함》등 세계 여러곳에 있는 우리 나라 옻칠제품들이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여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옻칠공예에서 기본은 여러가지 자개를 박은 라전옻칠공예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에는 빛과 보는 각도에 따라 색갈이 묘하게 달라지는 칠색령롱한 생복자개와 야광빛마냥 은근하고 깊이있는 빛을 뿜는 소라, 진주패를 비롯한 여러가지 진귀한 조개류가 풍부하다. 이러한 자개원천은 라전옻칠공예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라전옻칠공예는 자개뿐만아니라 금, 은 등 희귀금속들과 보석들을 상감장식재료로 리용하여 옻칠공예의 품위와 장식효과를 더욱 높인다.

옻칠공예에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색으로 장식그림과 회화적인 그림을 그려 만든것도 있다.

이런 그림들은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색갈이 변하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다.

고구려시기(기원전 277～668년)의 안악3호무덤, 강서중무덤, 룡구12호무덤에서 나온 칠그림들은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색갈이 선명하다.

옻진은 표면장식을 위한 칠감으로뿐아니라 천, 종이, 흙을 섞어 여러가지 모양의 기물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기물은 가볍고 견고하다.

옻칠장식은 병풍, 가구류들과 세소기호품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으며 특수한 방법으로 금속이나 도자기들에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옻칠공예는 오랜 민족적전통을 가지고있다.

장구한 기간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서 옻칠공예는 그들의 요구와 기호에 맞게 여러 품종과 형식들로 제작되였으며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 따라 형태와 무늬색갈도 다양화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여러곳에 옻칠공예를 위한 교육기관들과 전문창작기관들이 꾸려져있다.

그리하여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옻칠공예의 전통적 형식들과 품종들은 현시대 인민들의 생활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되고있다. 그 형식과 내용이 민간세습적인 범위를 벗어나고있으며 새로운 종류와 기법들이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하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옻칠공예는 대외무역의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였다.

우리 나라의 옻칠공예품은 여러나라의 이름있는 미술박물관들에 소장되여있으며 국제수공예품전람회들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찬을 받고있다.

평양미술대학 강대수



옻칠공예품

다섯번째의 통일대축제

7천만 해내외겨레들속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때인 지난 8월 15일 평양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가 2.8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날 대회장에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영결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90년대에 분단조국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고야말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와 드높은 열의가 세차게 굽이쳤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제5차 범민족대회가 선언되고 《조선은 하나다》, 《범민련가》의 노래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범민족대회기발이 입장, 게양 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북과 남, 해외에서 대회앞으로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문, 축기들이 소개되였다.

대회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의장이 보고를 하였고 범민련 해외본부대표단 단장인 일본지역본부 의장 량동민이 련대사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먼저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허혁필이 토론하고 이어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 허창조,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강영섭이 토론하였다.

대회에서는 제2차 범민련공동의장단회의 결정에 따라 제5차 범민족대회 공동문건들이 채택되였다.

문건들로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 속에 채택되였다.

대회에 앞서 8월 13일에는 만수대언덕우에 세워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서 90년대 통일실천결의집회가 진행되였다.

이날 만수대언덕에는 개선문과 **김일성**광장, 인민문화궁전 앞에서 출발하여 90년대통일실천결의행진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모여온 제5차 범민족대회 대표들과 시내 각계층 군중들의 대오로 차고넘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범민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북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90년대통일실천결의집회 참가자들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집회에서는 먼저 백인준의장이 연설하였다.

이어 범민련 북측본부 김영남부의장, 범민련 북측본부 홍일천중앙위원, 범청학련 북측본부 윤희섭부의장이 토론하였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8월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조국통일대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인 《**김일성**상》계관인 교수, 박사 김구식, 교수, 박사 최태진, 손종철, 박동근,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인 조정호,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한영수가 토론하였다.

조국통일대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리론과 방침들,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이고 대책적인 문제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학리론적으로 론증되였다.

한편 이날 모란봉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는 90년대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단이 있었다.

《범청학련가》의 합창으로 시작된 연단에서는 로동청년대표 김종학, 대학생청년대표 원금단, 농민청년대표 강용철, 범청학련 해외본부 공동의장대행 황영치, 예술인청년대표 박순희, 범청학련 북측본부 일군대표 윤광택이 연설하였다.

연단에서는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 북과 해외에서 진행되는 제4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에 보내여온 격려사가 랑독되였다.

연단은 새 세대 청년들의 확고한 90년대 통일의지를 과시하였다.

8월 15일 저녁에는 제5차 범민족대회 《통일문화의 밤》이 옥류관에서 진행되였다.

조국통일운동사에 또하나의 빛나는 장을 펼친 긍지와 자랑을 안고 뜻깊은 통일축제의 밤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들고 민족통일의 구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9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억센 기상과 굳은 의지가 뜨겁게 어려있었다.

모임에서는 먼저 백인준의장이 발언한데 이어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부의장 송영집,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 송봉순을 비롯한 북측본부일군들과 범민련 해외본부대표단 성원들인 강종헌, 최청산, 김순환, 백종호, 최정렬, 신옥자, 리희세, 리홍일 등 많은 참가자들이 앞을 다투어 발언하였다.

그들은 제5차 범민족대회가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7천만 겨레의 통일념원을 안고 민족대단합의 기치밑에 백두산에서 시작된 조국통일대행진을 한나까지 반드시 이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시위행렬을 취재하는 외국기자들



90년대통일실천결의집회에 참가한 대표들



90년대통일실천결의집회 참가자들의 장엄한 행진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하는 대회참가자들



만수대언덕우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90년대통일실천결의집회가 진행되였다.



고령련대표들



집회참가자들에게 안겨줄 축기를 마련한 수도시민들



90년대통일실천결의집회에 참가한 대회참가자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가 진행되였다.



김인서의 가족



범민련 해외본부대표단 성원들이 김인서로인의 가족과 상봉하였다.



제5차 범민족대회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90년대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단



재일동포들





조국통일대토론회가 진행되였다.



김영삼역도를 단죄하는 범민족대회 대표들



제5차 범민족대회 서울대회에 참가할 북측본부대표단이 판문점에서 돌파투쟁을 전개하였다.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범청학련총회에 참가하기 위한 범청학련 북측본부 대표단과 해외본부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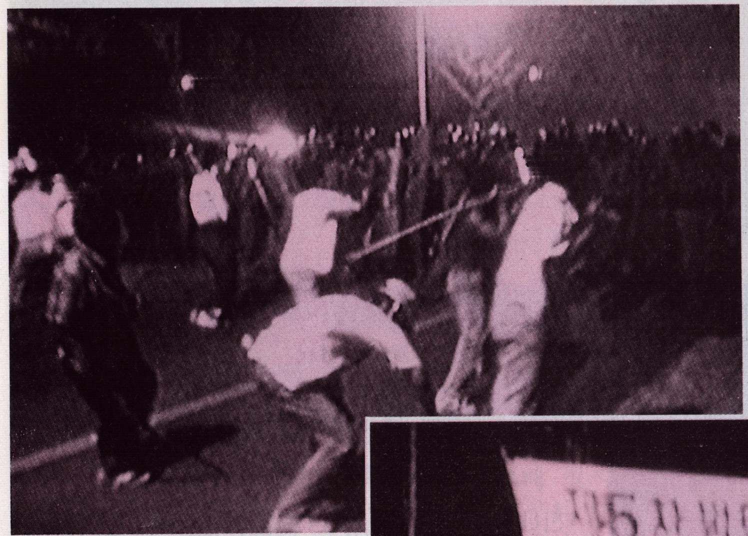
제5차 범민족대회 《통일문화의 밤》 진행

본사기자 김광진
김휘률



적들의 폭력에 항거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







서울에서 치렬한 공방전속에 제5차 범민족대회 강행

고국을 찾은 손원태선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원태선생에게 주신 선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손원태부부에게 주신 백금시계와 80돐생일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은 조의문을 보내여왔다.

그는 조의문에서 수령님을 잃은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는 평생 그이를 잊지 못할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한마디의 말로 가슴을 저미는 비통함을 대신할수 없었던 그는 서둘러 떠나 1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과연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단말인가?!)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안고 경황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전을 찾은 손원태선생은 그만 하늘이 꺼지는듯한 느낌속에 오열을 터뜨리고말았다.

(그렇게도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했건만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신단말입니까?!)

어버이수령님과의 뜻깊은 연고관계를 지니고있는 손원태선생에게 있어서 상실의 아픔은 그 어디에도 비할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에서 10대에 헤여졌다가 80이 다 되여 다시 만났을 때의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주석님,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십시오!〉하고 말하군했다. 나의 건강을 충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60년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던 손정도목사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만년장수는 일찌기 반세기전에 인연맺어진 손씨일가와 더불어 손원태선생의 가장 숭고한 의리와 충심으로 되는 소원이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그에게 베푸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고 만년장수하실것을 바라는 그의 소원만은 들어주지 못하신채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던것이다.

손선생은 천백마디말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아픈 마음속에 모대기며 다시는 뵈올수 없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추도행사가 다 끝난후에도 평양을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지난 8월 11일,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한달남짓이 흐른 이날 손원태선생의 생활에 또다시 격동적인 사연이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원태선생의 생일 80돐에 즈음하여 마련해놓으신 선물이 그에게 전달되였다.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손원태선생의 생일 80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손원태선생의 여든돐생일을 잘 차려주시려고 오래전부터 마음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 손원태선생의 생일을 한번도 차려주지 못한것을 가슴아파하시면서 여든돐생일만은 형님으로서 자신께서 몸소 차려주시겠다고 하시며 꼭 조국에 와서 생일을 쇠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난 5월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손원태선생의 여든돐생일상을 잘 차려주자고 하시며 손선생이 아들딸들과 친척, 친지들까지 다 데리고 오게 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 벌써 생일 여든돐선물로 대형보석화 《송학》을 마련해놓으시였다.

대형보석화 《송학》에는 푸르싱싱한 소나무와 여덟마리의 학이 형상되여있으며 **《손원태동지의 생일 여든돐에 즈음하여》**라는 글과 존함수표가 새겨져있는데 여기에는 손원태선생의 건강장수와 행복을 바라시는 우리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정이 깃들어있었다.

장장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잊지 못해하시며 손원태선생에게 그렇게도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고싶어하시던 수령님의 그 뜨거운 인정미와 의리의 여든돐생일상, 그것은 바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그대로 꽃피워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실현되게 되였다.

민족의 크나큰 슬픔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손원태선생이 수령님을 모시고 생일 여든돐을 쇠지 못하게 된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일군들에게 생전에 수령님께서 손원태선생을 위하여 마련하여주신 저택은 그에게 남기신 유산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유훈대로 손원태선생과 그 가족들이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처럼 아무때나 오고싶을 때 조국에 찾아와 그 저택에서 살도록 해야 그들을 보는 자신의 마음도 섭섭하지 않을것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생일축탑, 대형과일바구니 그리고 손선생과 부인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보내시였으며 손원태선생이 국상을 당한 이때 생일잔치를 차린다는것은 도리에도 어긋나므로 생일을 쇠지 않겠다고 거듭 사양하였을 때에도 그의 생일을 차려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지키는것이라고 하시며 생일을 성대히 차려주도록 거듭 말씀하시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손원태선생의 생일 80돐을 축하하는 연회는 8월 11일 저녁 목란관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대를 이어 꽃펴나는 인간사랑의 정화라 할수 있는 사실앞에 목메여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손원태선생은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은 그대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며 백의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본사기자 채금옥

(인상기)

뜨거운 통일열기



조국통일의 원년 1995년을 한해 앞두고 북부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5차 범민족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된것은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피줄을 타고난 조선사람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국통일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숭고한 뜻이고 절절한 념원이였습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신 민중을 위한 그 헌신적복무의 길이 제주도로 이어지는 날 풍치아름다운 다도해기슭에 수령님을 모시고 싶었던것이 남녘민중의 간절한 소망이였고 우리 해외동포들의 심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보시지 못하신채 서거하시였으니 이는 참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슬픔이고 상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조국을 방문하여 90년대통일실천결의집회와 조국통일대토론회, 90년대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단과 《통일문화의 밤》 등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진행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여 고국동포들의 뜨거운 통일열기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북부조국의 모습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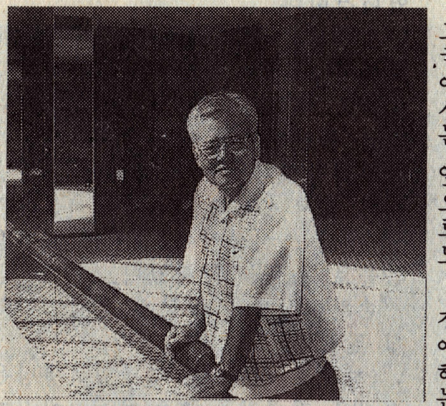
통일된 조국에서 온 민족이 모여 화목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그토록 헌신분투하며 애쓰시던 수령님의 크나큰 념원이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5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애국사업에 이 한몸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재독교포 신옥자

(인상기)

통일의 전도는 락관적이다



저는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에 고국인민들의 통일열의가 대단히 높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고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로 인하여 헤아릴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당하였지만 조금도 위축되거나 비관하지 않고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한시바삐 이루겠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분발하고있었습니다.

고국에서는 모든것이 안정되여있었으며 《혼란》의 흔적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서방세계의 일부 외곡된 선전을 듣고 혹시나 하는 내나름의 억측을 하였던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고국에서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생존시처럼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가리라는것을 저는 굳게 믿게 되였습니다.

이번 제5차 범민족대회는 누가 진짜로 통일을 원하고 누가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에 범민련 해외본부 림민식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 해외교포인사들이 참가하려고 애쓴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들은 서울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이 그들의 앞길에 차단봉을 내렸던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기자들이 제5차 범민족대회 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취재하였기때문에 통일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그들에 의해 명백해질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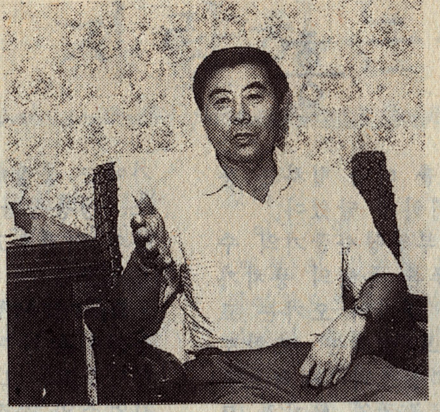
그리고 한가지 확언할것은 앞으로 북남통일대화가 계속되여도 불상사를 당한 동족의 가슴을 란도질한 김영삼의 행위에 대해서는 똑똑히 계산을 해야 할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은 7천만 겨레요, 그것을 방해하는자는 한줌도 안되는 무리들이므로 90년대 통일은 확정적인것입니다.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부의장 송영집

(인상기)

신심과 용기를 얻었다



제5차 범민족대회는 조선민족의 장한 기개를 만천하에 시위한 의의깊은 회합이였습니다.

사실 대회참가를 위해 고국에 도착하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대표들은 슬픔에만 휩싸여 도저히 마음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민족단합과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지 않는 고국땅을 밟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였습니다.

그러나 고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국인민들은 최대의 슬픔앞에서 비관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으며 더욱더 분발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제일 소원하신것이 조국통일이였으므로 고국에서는 이번 범민족대회를 매우 중시하고 높은 수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회기간에 백배로 강해진 고국인민들의 통일 열망과 의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장한 모습을 보여준 고국인민들에게 끓어엎디여 절을 하고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구라파와 미주, 일본 등 각지에서 온 해외교포들도 이번에 고국에 와서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통일념원을 한시바삐 실현해야 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더욱 자각하게 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뜻을 훌륭하게 이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기에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동요와 굴함을 모르고 자기의 존엄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뜻을 잘 받들어나갈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며 민족은 대대손손 무궁번영하리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서기장 조윤해

(인상기)

범청학련의 기발아래



지난 8월 우리 재중동포청년학생대표들은 겨레의 통일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속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 조국통일의 기쁨을 드리지 못한 통분함과 자책감으로 하여 조국땅을 밟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이처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적은 없었습니다.

범민족대회기간에 우리는 조국의 청년학생들과 굳게 손을 잡고 심장으로 통일을 부르짖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기어이 90년대에 통일조국을 안아올 불같은 결의를 피력하였습니다.

슬픔을 의지로 이겨내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일심단결되여 일떠선 조국인민들의 모습,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조국인민들의 통일열망은 언제나 조국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있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진 남조선당국의 야만적인 폭압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통일축제를 강행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과감한 투쟁도 매우 고무적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정의에 투철하고 애국에 열렬한 조선청년들이 마음을 합치고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통일성업은 반드시 짧은 기일안에 이룩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습니다.

범청학련은 해내외의 전체 조선청년들의 단결의 상징이며 민족의 자랑스러운 통일선봉대입니다.

우리 재중동포청년학생들은 범청학련의 기발아래 일치단결하여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입니다.

범청학련 중국지역본부 부의장 김영희

기행－동해기슭을 따라

홍 원

어랑도시 신포를 떠난 렬차는 풍어역을 지나 경쾌하게 달렸다.

차창밖으로는 부전령산줄기의 수려한 산발들과 푸른 동해의 풍치가 펼쳐지고 풍어기 날리며 오가는 고기배들이며 들길로 달리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들… 창조와 변혁으로 이어지는 풍요한 조국의 활기찬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운포와 경포 등 바다가마을을 지나 우리는 드디어 목적지인 홍원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먼저 홍원시내가 한눈에 바라보인다는 학두봉 중턱의 광풍루에 올랐다.

고색짙은 여덟개의 아름드리 나무기둥에 받들려 하늘로 날듯한 합각지붕과 형형색색의 단청무늬가 새겨진 광풍루는 15세기경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력력히 깃들어있었다. 수백년동안 이 나라 력사와 함께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꿋꿋이 서있는 루각은 오늘 홍원땅에서 일어난 전변의 새 력사에 대한 증견자이기도 하다.

《17세기말엽부터 홍원은 군소재지로 되여왔지만 해방전까지는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반농반어촌에 불과하였지요. 그런데 보다싶이 홍원땅이 저렇게 변하였습니다. …》

홍원군행정경제위원회 김익화지도원은 루각에서 우리에게 군의 연혁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루각에서 바라보니 저 멀리 바다가에는 웅장한 수산사업소와 조선소, 랭동공장 등 수산업기지의 위용이 안겨오고 짙은 록음속에 잠긴 홍원읍의 새 거리들이 바라보였다.

1976년 11월 홍원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만을 더 크게 건설하고 홍원수산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세소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수산사업소를 새로 내오는 한편 물고기잡이와 그 가공작업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군에서 배를 많이 뭇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 밝은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홍원군은 현대적인 수산업과 발전된 농업과 지방공업을 가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다.

수산업은 홍원군의 경제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홍원군은 강력한 먼바다물고기잡이와 가까운바다물고기잡이, 바다가양식을 배합한 수산업기지로, 수만톤의 랭동능력을 가진 랭동공장을 비롯한 물고기가공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잡아내는 명태, 가재미, 이면수, 낙지, 공치 등 물고기류와 섭, 다시마, 참미역 등 바다가양식업은 그 생산량에서 전국적인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군지도원의 안내로 홍원수산사업소와 랭동공장을 거쳐 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군소재지에는 고등농업전문학교를 비롯한 학교들과 문화회관, 체육관, 병원, 도서관 등 공공건물들과 다층살림집들이 거리의 풍치를 돋구고있었다.

군에는 또한 식료, 일용품, 피복, 직물, 신발, 화학, 종이, 가구공장 등 2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500여종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고있었다. 해방전에 성냥 한갑, 고무신 한컬레를 사기 위하여 비린내풍기는 물고기를 이고지고 함흥시장까지 다니던 일은 먼 옛이야기로 되였다.

홍원땅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삼촌이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혁명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스러운 고장이다.

우리는 읍중심거리에 모셔진 김형권동지의 동상과 사적비를 돌아보았다. 때마침 홍원땅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동상과 사적비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김형권동지의 업적을 되새기고있었다.

60여년전 1930년 여름 경애하는 수령님으로부터 국내진출임무를 받으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거느리시고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나오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후 풍산, 덕성, 리원, 북청, 홍원 일대에서 과감한 정치군사활동으로 암흑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새 희망을 안겨주시고 일제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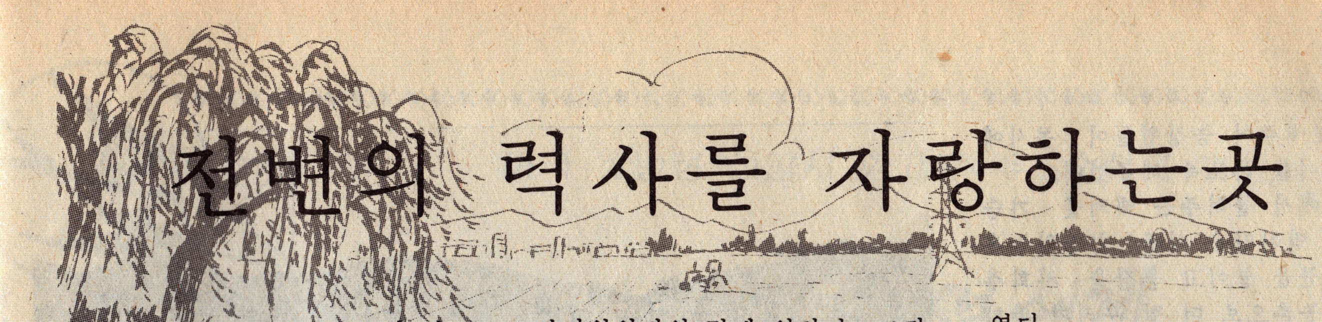
그해 9월 2일, 나무군차림새로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홍원읍에 들어가시던 김형권동지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서 앞서걷던 소조원의 몸을 뒤지려는 홍원 전진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 오까요놈을 처단하고 동지들을 구원하시였다. 주구놈의 밀고로 포위속에 들게 된 그이께서는 탄알이 떨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우시였으나 불행하게도 원쑤들에게 체포되시였다. 그이께서는 홍원경찰서와 함흥, 서울의 형무소에서 옥중투쟁을 통하여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광복의 려명을 안겨주시였고 공산주의투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시였다.

투사들의 더운피가 스며있고 그들의 념원이 꽃핀 홍원땅은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될것이다.

본사기자



홍원휴양소



전변의 력사를 자랑하는곳

전설들에서는 흔히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것은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피는 고장으로서 《착취도 압박도 없고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리상향》을 이르는 말이다.

이 땅에 삶의 터전을 잡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무릉도원을 한갖 옛말에서나 꿈속에서만 찾아보게 되는것으로 알고 수수천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러한 리상향이 오늘 조선에서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것을 우리는 황해남도 신천군 화산협동농장(해방전의 신천군 문화면 화산리)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화산협동농장은 신천군 읍에서 서북쪽으로 10키로메터 떨어진곳에 자리잡고있는데 우리는 얼마전에 그곳에 들린적이 있었다.

이곳 리종현관리위원장은 우리가 찾아온 취지를 이야기하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는데 직접 현지에 나가보는것이 어떤가고 하는것이였다.

그 의견에 동의하자 그는 우리를 《은정마을》둔덕에 세운 전망대로 안내하였다.

전망대에 올라서니 농장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부채살처럼 퍼져내린 높지 않은 산발들, 그 기슭에 2~3층의 문화주택들이 규모있게 들어앉았는데 앞에는 논밭이 펼쳐져있고 뒤산 경사지마다에는 복숭아, 배, 사과, 추리, 살구 등의 과수밭이 꾸려져있었다. 그리고 골바닥에는 큰 저수지까지 있어 마치 선경같았다.

그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해주려는듯 싱그러운 바람에 벼이삭들은 물결쳐 설레이고 그윽한 과일향기 날려와 풍만한 농장의 향취가 한껏 안겨왔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특별히 끈것은 논밭가운데로 운하처럼 길게 뻗어간 물길이였다.

관리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서해갑문－신천－강령－옹진물길인데 대동강의 물이 10여메터의 폭으로 된 그 물길을 따라 흐르면서 주변의 논밭을 적셔주어 강이 없는 산골농장이지만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그래서 1958년에 건설한 화산저수지는 지금 양어장으로 리용되는데 거기에는 기념어, 잉어, 붕어 등 수십종의 물고기가 욱실거려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지만 농장원들의 식탁에는 물고기료리가 푸짐하게 오른다는것이다.

게다가 포전들이 모두 기계화포전으로 정리되고 전기까지 들어와 농산작업을 거의나 기계로 하고있으니 농장원들의 일은 헐해지고 생활은 나날이 풍족해져서 마을과 들판에서는 언제나 흥겨운 노래소리가 차넘친다고 한다.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사람들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이곳 농장마을을 바라보니 신화속에 나오는 무릉도원이 눈앞에 펼쳐진듯 하였다.

우리가 원래부터 농장마을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만했는가고 묻자 관리위원장은 주름잡힌 얼굴에 회억의 미소를 띠우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본래 이고장은 불화(火)자에 메산(山)자를 써서 화산리라 불렀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땅이 석비레땅으로 척박하기 그지없어 조금만 가물어도 불에 타듯 곡식들이 말라죽는곳이라는 뜻에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개울하나 없는 불모의 땅이여서 여기에 살림을 폈던 농군들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농사를 지어보다가 할수없이 메산자보따리를 등에 지고 어디론가 떠나가군하였다. 그리하여 이고장에 있는 자그마한 고개길도 등메고개라는 이름이 붙게 되였다.

이고장의 동네들은 오래전부터 《백정》의 신분을 가진 천민들만이 살아왔으므로 해방(1945년 8월)전까지만 해도 《백정촌》으로 불리워졌다. 그때 농장관리위원회가 자리잡고있는 고장에는 초가집이 여라문채 있었는데 해가 지면 지옥같이 캄캄해지는 어둠을 밝혀주는것은 오직 광솔불뿐이였고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은 박우물이 전부였다.

조국의 광복과 함께 이고장은 사람도 땅도 변모되게 되였다.

1956년에 이고장에도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져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농업근로자로 되였으며 논과 밭, 과수원들이 늘어나고 저수지도 건설되였다. 그리고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광솔불은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농장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여주시였다.

1973년 11월 이곳 농장을 찾으시여 실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농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서와 다음해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이곳 농장을 찾으시고 포전을 정리할데 대하여서와 농장원들에게 문화주택을 지어줄데 대한 문제, 과수원을 늘이는 문제, 기계농사를 하여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지을데 대한 문제, 저수지에서 물고기와 오리를 많이 기를데 대한 문제 등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국가에서는 이곳 농장에 자동차와 뜨락또르, 벼모내는 기계, 벼수확기를 비롯하여 34종에 1,000여점의 농기계와 농기구를 보내주었으며 1985년에는 2층, 3층으로 된 두세칸짜리 문화주택을 수십세대나 지어주고 텔레비죤과 이불장, 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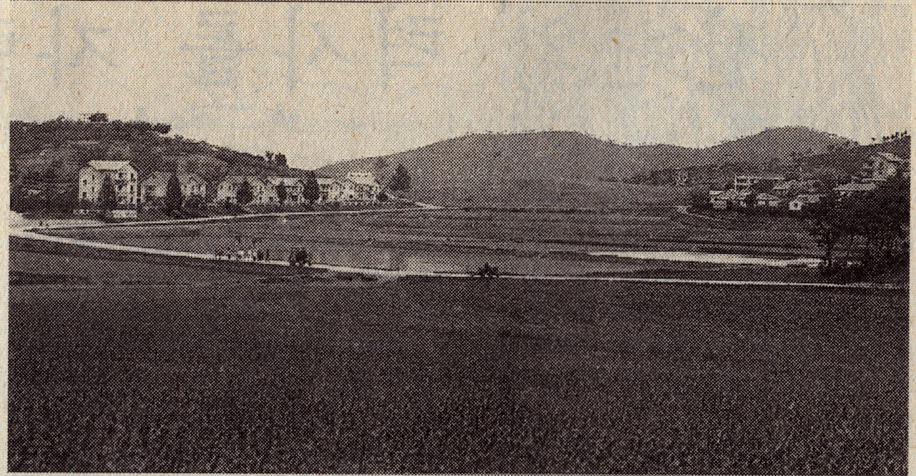
까지 보내주어 농장원들이 동시에 새집들이를 하도록 해주었다.

나라에서 돌려주는 배려를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이곳 농장원들은 알곡생산을 늘이고 농장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 나날에 이곳 농장원들은 600여정보의 논밭을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하고 척박했던 땅을 옥토로 전변시켜 알곡생산을 현지지도당시에 비하여 2.1배나 장성시켰다. 그리고 농장에서는 과수원을 더 늘이고 소방목지도 잘 꾸려 해마다 고기와 과일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이였다.

뿐만아니라 농장원들이 한가지이상의 농기계를 능숙히 다루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많은 뜨락또르운전수가정이 배출되게 하였으며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기서 자체로 밀폐식종합탈곡기와 논두렁짓는 기계, 김매는 기계 등 30여가지의 농기계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거의 모든 농산작업을 기계로 하게 되였다.

하여 이곳 농장은 10여년전부터 한명의 지원로력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짓고있다.



황해남도 신천군 화산협동농장

오늘 농장에는 160여명의 기사, 준기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체농법대로 과학농사를 짓도록 기술지도사업을 하고있다.

농장에는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 인민학교를 병설한 화산고등중학교와 리인민병원, 종합편의봉사망, 문화회관 등도 훌륭히 꾸려져있다.

그리하여 오늘 이곳 농장원들은 수많은 농기계를 가지고 기계농사를 하며 복숭아, 배, 사과 등 여러 과일꽃이 만발하는 동산에서 기와집을 쓰고 흰쌀밥에 고기와 남새, 과일과 물고기를 먹으며 생활의 근심걱정이 없이 지난날 선조들이 꿈속에 그리던 《무릉도원》 부럽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갑송

아시는지요?

로화를 막는 다시마의 옥소

다시마는 광물질의 보물고라고 말할수 있으리만치 여러가지 성분을 가지고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로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 옥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옥소는 갑상선호르몬의 재료로 된다. 이 호르몬은 성장기의 발육을 촉진하고 전신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호르몬의 기능은 젊음의 표징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귀중한 호르몬이다.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완만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머리카락이 빠지기 쉽고 추위에 약해지며 피로해지기 쉽고 힘이 없어지면서 기력이 약해지는 등 심신의 량측면에서 로화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갑상선의 기능을 높여 갑상선호르몬을 충분히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갑상선호르몬의 재료로 되는 옥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사람의 몸에는 대체로 10~25미리그람의 옥소가 존재하는데 그의 약 70~80%는 갑상선에 집중되여있다. 그런데 다시마 100그람중에는 옥소가 240~300미리그람이 들어있다. 한입에 넣을만한 정도의 다시마만으로써도 하루에 필요한 옥소가 보장된다고 한다.

옥소는 갑상선호르몬에 대한 작용뿐아니라 피줄의 젊음을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을 통하여 옥소가 피속의 중성지방분해의 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는것과 피속의 콜레스테린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것을 밝혔다.

이것으로 보아 옥소가 피속의 지방이나 콜레스테린치를 억제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피줄의 로화를 막는 작용을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런 작용의 주되는 담당자는 다시마의 독특한 미끈미끈한 성분이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황고구 주조소학교 곽순실 앞

이국에 있는 동생에게

순실아, 잘 있느냐? 심양에 있는 오빠며 언니 그리고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조국에 있는 우리는 다 잘 있다.

순실아, 오늘 우리 동네에 기쁜 일이 생겼다.

이웃에 있는 내 동갑이가 먼 이국에서 살고있는 혈육들이 찾아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지.

웃음과 눈물이 엉킨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은연중 그곳에 있는 혈육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더구나.

순실아, 지난해에 막내아들의 결혼식을 하였다. 새 며느리는 인물이 고운데다가 마음씨 또한 비단같고 무던하여 정말 사랑이 간다.

결혼식날 아들 넷에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다 모이고보니 우리 집안도 큰 집안이더구나.

그날밤 즐거운 오락회에서 아들, 며느리 쌍쌍에 손자손녀들까지 떨쳐나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노는걸 보니 세상복은 내가 다 안고사는것 같더구나.

동네 어른들도 그 광경을 보며 아들, 며느리들이 한결같이 끌끌하고 손자, 손녀들이 귀엽다고 하면서 저마다 내가 자식복을 타고났다고 몹시 부러워들 하더구나.

순실아, 나는 요즘에 자식복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군한다.

그들은 맏이 영국이가 대학을 나온후 금천고등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착실히 배워주어 도적인 취주악경연에서 늘 높은 평가를 받으니 그게 어머니의 기쁨이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도 빠진데없이 일을 잘하고 어머니에게 지성다하니 복이 넝쿨채로 떨어지는게 아닌가고 한다.

이 늙은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영국의 어머니라고 존대를 하고 군기관 일군들까지 《영국이, 영국이》 할 때면 과연 내가 자식을 얼마나 잘 두었기에 남들이 이럴가 하는 송구감이 들 때가 있다.

순실아, 우리는 지난해 초가을에 새 집으로 이사하였다.

례성강기슭의 언덕우에 새로 일떠선 아담한 다층살림집에서 우리가 산다.

창문밖에 눈길을 보내면 례성강의 푸른 물결이며 그 우로 지나간 례성강다리가 안겨오는데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것 같다.

막냉이도 결혼식을 한후에 인츰 우리곁에 있는 새 집을 받고 집들이를 했다.

옛날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번 집을 옮겨앉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지.

집을 구하고 꾸리는데 돈을 물쓰듯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돈 한푼 내지 않고 그쯘하게 꾸려진 새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 그저 희한하고 놀랍기만 하더구나.

넓고 환한 방안에 앉아있노라면 과연 내가 자식복이 있어 늘그막에 이렇게 락을 보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생각뒤에는 항상 가슴을 후덥게 하는 다른 생각이 있구나.

그것은 내가 좋은 세상을 만난탓에 수령복, 나라복을 입고산다는 그것이다.

옛날 같으면 나같은게 저고리등이 땀에 삭아 떨어져내리고 이 손끝이 몽드라지게 일을 해도 자식들을 대학공부시키고 이처럼 좋은 집을 쓰고살 생각을 꿈에서나 하겠느냐.

언제인가 텔레비죤을 보던 큰손녀가 문득 세금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왜 내야 하는가고 물은적이 있다.

나는 선뜻 그 대답을 못했구나.

세금이란 말을 들어본지도 오래됐고 몇푼되지 않는 세금조차 내본지도 먼 일로 되였으니 머리속에서 잊어졌기때문이다.

어쩌다 이 늙은것이 몸간수를 잘못하여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누우면 병원 선생들이 무슨 큰 일이나 난듯 달려와 진찰을 하고 치료해주는가 하면 군기관 일군들이 자주 찾아와 집살림에서 불편이 없는가고 물을 때면 내가 정녕 고마운 사회제도에서 살고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눈굽이 젖어들더라.

그러니 나는 나라덕을 받아 자식복이 있는게 아니겠느냐.

순실아, 금년봄에 고향방문으로 금천에 온 한 해외동포가 우리 말을 류창하게 하지 못하는것을 보고 이고장 사람들은 버리고 잊을게 따로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민족의 말까지 잊었다고 하더구나.

나에게는 그 일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더라.

이국에서 오빠며 언니 그리고 동생, 조카들이 살고있기때문에 그런지 모른다.

우리가 말이 다르고 풍습도 달라진다면 혈육간도 남의 나라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니.

순실아, 그럼 이만 쓰련다.

너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

황해북도 금천군 금천읍
139반 곽봉춘



곽봉춘(뒤줄 가운데)

언제나 마음속에

동해의 항구문화도시 원산을 떠나 남으로 경쾌하게 달리는 뻐스안에서 우리는 한 중년길손과 마주앉게 되였다. 카나다 오타와에서 살고있는 한 동포의 고향인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를 소개하려고 간다는 말을 듣자 그는 반색을 하며 자기도 온정태생인데 온정만큼 경치좋고 살기 좋은곳이 없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옛날사람들이 이르기를 산좋고 물좋고 땅좋으면 복락을 누린다 하였는데 바로 오늘의 온정리가 그런곳이라고 하였다.

금강산의 외금강에 자리잡고있는 온정리는 명승지 금강산의 탐승기지로, 문화휴식터로 꾸려져있었다.

온정리의 서남북쪽은 중중첩첩 기암준봉이 둘러싸여있고 한가운데로는 온정천이 흘러내리면서 곳곳에 소를 이루었는데 잣나무며 소나무, 벗나무가 숲을 이룬 온정천기슭에는 려관이며 휴양소, 상점 등의 건물들이 독특한 건축미를 가지고 솟은것이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련상케 했다.

뻐스칸에서 구면이 된 길손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해방전 온정사람들은 온정천하류에 펼쳐진 얼마 안되는 땅뙈기에 명줄을 걸고 살아왔다.

그때 해묵은 이영이 허구프게 덮여있던 초가가 몇채밖에 없어 영성했던 온정마을에 오늘은 세칸네칸짜리 기와집들이 번듯하게 들어앉았다.

우리의 눈길은 마을과 잇닿아있는 온정벌로 갔다.

규격포전으로 반듯하게 정리된 논밭마다에는 싱그럽게 자란 벼포기가 산들바람에 너울거렸고 논밭에서 울려오는 농장원처녀들의 맑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농기계의 동음과 어울려 농촌의 그윽한 정취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온정천기슭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과거에는 가난뱅이들은 발을 들여놓을수 없었던 온정천기슭에 오늘은 금강산탐승을 하는 로동자, 농민들을 위한 려관이며 편의봉사시설이 편리하게 자리잡고있다.

소나무숲속에서 솟아나는 외금강온천은 탐승객들이 즐겨찾는곳이였다.

금강산탐승을 한 손님들은 아담하고 정결하게 꾸려진 외금강온탕에서 피곤을 풀고 맑고 거뜬해진 기분으로 숙소로 간다.

온정기념품매대로 탐승객들과 금강산유람을 온 해외동포들이 쉼없이 찾아들고있었다.

상점매대에 진렬된 공예품들에는 이고장 사람들의 자기향토에 대한 애정이 소박하게 담겨있어 탐승객들과 해외동포들의 호평을 받고있었다.

어제날에 인력으로 가대기를 끌어 조나 피를 심고 바다에서 조가비를 건져내는것을 생업의 전부로 알던 사람들이 오늘은 재능있는 공예가가 되여 전국에 이름난 공예품을 만들어내고있다.

우리는 다층건물로 새로 일떠선 김정숙려관을 돌아보았다.

건물의 외형도 새롭고 독특한 인상을 주었지만 내부시설도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줄수 있게 잘 꾸려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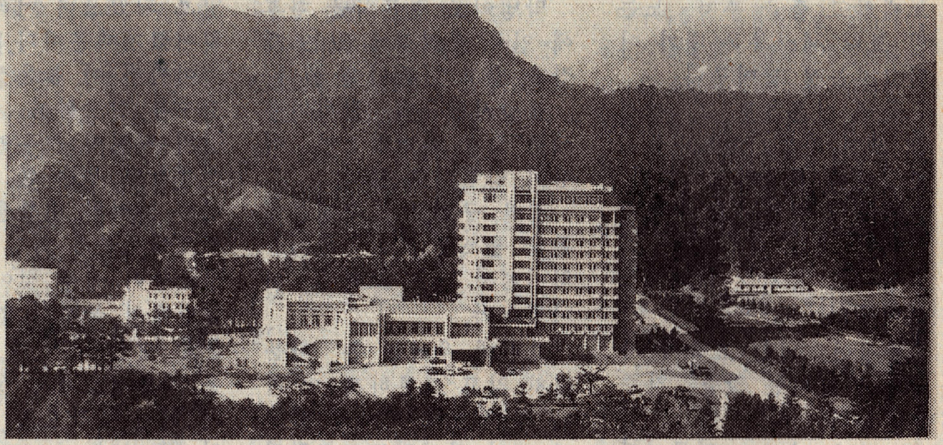
중앙홀의 현란한 무리등이며 앞벽면에 참대살로 그물을 떠서 그우에 목각품을 붙인 장식품은 고전미가 담겨 류다른 감명을 주었다.

아담하게 꾸려진 방들과 식당, 휴계실, 기념품매대는 다 특색있게 꾸려져있었다.

카나다에서 살고있는 김진호동포의 고향 온정리는 참으로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

그러나 진호동포의 기억에 생생할 고향의 온정천은 예나 다름없이 맑은 물이 흐르고 뒤산의 덕바위는 여전히 푸른 이끼에 덮여있다.

동포는 비록 대양건너 이국의 먼곳에 있어도 그토록 아름다운 고장에 생의 뿌리를 두었기에 늘 고향을 마음에 소중히 안고 살아가리라.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의 일부

〔독자란〕

《90년대 통일을 앞당겨나가겠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의 접촉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쌍방은 북남최고위급회담을 199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채택되였던것은 7천만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희사로 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통일을 갈망하고있던 우리 해외공민조선동포들이 통일의 돌파구로 되는 최고위급회담의 성과가 있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환희로 들끓고있을 때 뜻밖에도 고국의 라지오방송을 통해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내리는듯하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터지는것같아 《이것이 꿈이 아닌가?》라고 한탄하며 땅을 치고 비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우리 해외에 흩어져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고국의 인민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대한 추도행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낮에 밤을 이어 텔레비죤과 라지오결을 떠나지 않으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어리신 나이에 벌써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우시다가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두고 급병으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니 이 어찌 원통하고 가슴아프지 않겠습니까.

나는 최근 몇해사이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저작집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4권)를 읽으면서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실뿐아니라 전세계에 으뜸가는 위대한 수령이심을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특히는 작년 7월 23일 자강도 만포시에 친척방문을 갔던 기회에 자강도 고산진혁명사적관을 견학하면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령활한 전략전술을 알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비록 우리곁을 떠나가셨지만 그이의 탁월한 주체사상과 고귀한 혁명업적은 천추만대 길이길이 살아 빛날것입니다.

그이의 뜻을 이어가시는 조선인민의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이국땅에서 살고있는 우리 조선동포들은 비통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현명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그렇게도 애써 실현하시려던 통일위업의 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90년대 통일을 앞당겨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영생불멸할것입니다.

주체사상 만세! 조국통일 만세!

잡지《금수강산》의 애독자 —
중국 길림성 집안시 조선족
실험소학교 김동식
1994년 7월 21일

남새의 단맛과 향기를 살리자면

가두배추, 가지, 녹두나물, 감자, 고구마, 홍당무우 등에는 당분이 많이 포함되여있다. 이런 남새들은 오래 끓일수록 또 잘게 썬것일수록 당분이 물에 녹아나온다.

례를 들어 가두배추를 삶으면 당분이 2분의 1~3분의 2정도 흘러나가며 껍질벗긴 감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것보다 거의 10배 가깝게 농마가 녹아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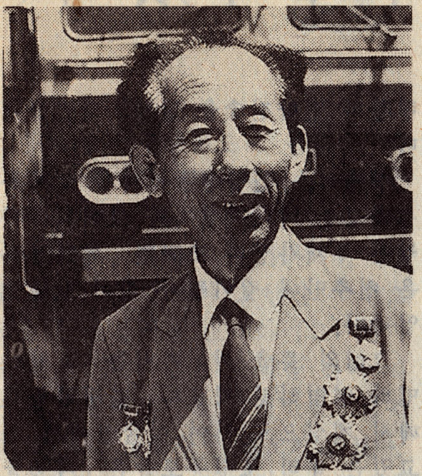
그러므로 가두배추, 녹두나물, 가지 등은 삶아서 양념하기보다 김에 쪄서 무치거나 볶는 료리를 하면 훨씬 달큰하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도 있다.

생나물을 만들 때 남새의 단맛과 고유한 향기를 살리자면 간을 삼삼하게 해야 한다.

소금을 뿌려서 숨죽인 남새를 물에 씻으면 비타민C와 광물질이 많이 빠지므로 1~1.5%정도의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물에 헹구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남새에 소금을 많이 뿌려서 지나치게 짤 때에는 물에 넣어 소금기를 빼려 하지 말고 물을 끼얹으면서 간을 조절해야 한다.

생나물의 간이 짤 때에 식초를 더 치면 짠맛이 가셔지고 맛이 좋아진다. 식초는 신맛을 내는 양념감으로서 생채, 랭채, 랭면 등 찬음식의 산뜻하고 시원한 맛을 돋구는데 좋을뿐아니라 미생물의 작용을 억누르므로 음식의 썩음막이약으로도 된다. 그러나 남새의 푸른 색소를 파괴하므로 푸른 남새음식에는 음식을 들기 직전에 쳐야 한다.

한 설계가의 이야기에서



전재윤

육중한 부분품들을 물고 움직이는 천정기중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는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전기기관차조립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철도부 차량설계사업소 전재윤 분소장은 자그마한 체구의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이였다.

첫 《붉은기》호 전기기관차를 만들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우리의 청에 그는 살아움직이는듯한 붉은색의 글자들이 커다랗게 새겨져있는 구호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자력갱생, 바로 이것이였습니다.

우리 공업발전의 전력사를 관통하는 생명선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어 우리는 제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낼수 있었습니다.》

긍지에 넘친 그의 이야기는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해주는 의미심장한것이였다.

× × ×

《1958년 우리가 전기기관차를 만들겠다고 할 때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발도 안난 아이가 강냉떡을 먹는격〉이라는것이지요.

일부 나라 사람들은 괜히 고생하지 말고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기관차를 사다쓰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형편에서 자체의 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겠다고 나선것은 쉽게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습니다.》

감회깊은 추억을 더듬으며 전재윤이 하는 말이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4살, 대학을 졸업하고 생산현장에 발을 들여놓은지 몇달밖에 안되는 그야말로 《책상물림》이였다. 그러한 재윤에게 책임설계가의 중임이 맡겨졌다.

설계집단에 망라된 다른 사람들도 모두 20대안팎의 젊은이들이였다. 그중에서 전기기관차를 직접 보고 그 계통에 대하여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제작공장이라고 하는 서평양철도공장(오늘의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또한 증기기관차나 내연기관차 그리고 객화차의 수리나 하는 자그마한 공장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윤은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당시의 공업발전수준에서 전기기관차는 고도의 정밀성과 견고성을 요하는 1만 4천여종에 18만여개의 부속품이 들어가는 기계공업과 전기공업 발전의 정수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때 세계적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드는 나라는 불과 열손가락미만이였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품이라고 할수 있는 견인전동기와 고속도차단기를 자체로 만드는 나라는 극히 적었다.

그런데 산업혁명시기의것이라고 하는 증기기관차도 만들어본적이 없는 조건에서 전기기관차를?!…

수많은 눈길이 이들에게로 쏠리고있었다.

그때 전기기관차조립공으로 일했다는 올해 82살난 리응원아바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하고 달라붙었수다.

힘들다고 해서 그 누구의 방조나 도움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백년이가도 일어서지 못할거웨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걸음, 백걸음을 걸어서라도, 남들이 땀을 흘렸다면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라도 기어이 우리 힘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요.》

우리 로동계급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전기기관차를!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열정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온 공장이 들끓었다.

공장의 한켠 구석을 막고 들어앉은 설계실에서 전재윤의 지도하에 설계가 진행되였다.

하루작업이 끝나면 외등을 켠 넓은 마당에 칠판을 내걸고 재윤이 강사로 출연하는 기술학습이 벌어졌다. 자정이 지났어도 《왼손법칙》이요, 《오른손법칙》이요, 전동기의 원리요 하면서 활발한 론쟁을 벌리는 로동자들의 말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는 청년들도 강의가 끝나면 공장으로 달려와 밤을 새우며 공부하군하였다.

우리 나라의 실정과 지형조건에 맞는 전기기관차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가들의 노력은 구배가 심하고 굴곡이 많으며 산악이 아주 많은 우리 나라의 북부산지대들을 비롯하여 조국의 방방곡곡 수백, 수천리 길을 답사하며 그 특성을 연구해나가는 걸음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있었다.

차바퀴의 공회전을 없애도록 모래뿌림장치를 설치하고 속도를 능동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치차설계와 조작회로설계를 새롭게 하여 기성의 전기기관차보다 1.5배의 견인력을 가지면서도 각이한 정황처리를 잘할수 있게 만든 설계에는 그야말로 우리 식의 새로운 전기기관차를 내놓으려는 설계집단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불과 8개월만에 1만여매의 설계도면이 완성되여 제작집단에 넘어갔다.

청년돌격대가 앞장에서 소재를 부어내고 가공, 제작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기공기대 하나 변변한것이 없는 조건이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새로운 설비를 만들고 갱신해가며 가공을 내밀었다.

5메터정도의 대차틀만 가공하게 되여있는 기공기대에서 18메터나 되는 대차틀을 가공해냈다면 단위스위치갈이작업을 담당한 로동자들도 새로 창안한 기통보링대를 도입하여 기통연마의 질을 훨씬 높여 작업능률을 거의 2배로 높이였다.

전기기관차의 《뇌수》라고 하는 고속도차단기의 제작은 가장 어렵고 힘든것이였다. 전기기관차의 보호기구로서 1,000분의 3~1,000분의 15초사이에 동작해야 하는 이 기구는 대단히 정밀하고 복잡하면서도 온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높은 기술적지표를 요구하고있었다. 그래서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이 기구만은 수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누가 만들지 못한다고 했는가. 이 전기기관차는 조선로동계급의 량심을 걸고 만드는것이다. 마지막나사못 1개까지 우리의것으로 하자는것이 우리 량심의 대답이다.》

로동자들은 이렇게 웨쳤다.

고속도차단기의 직접부분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 은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고 로동자들은 집안의 가보로 귀중히 간수해두고있던 은장도와 은반지, 은수저 등을 내놓았다.

한번, 또 한번… 반복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달라붙은 로동자들의 손에서 36번째만에 태여난 고속도차단기는 드디여 함경남도 고원역에서 성공의 막을 내리였다.

현장에서 밤을 패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님들을 위해서 아이들도 선전대를 무어가지고 나와 사기를 북돋아주었고 일손도 도와주었다.

1961년 7월 24일부 《로동신문》은 《전기기관차를 생산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드는 전기기관차생산이 마지막고비에서 다그쳐지고있는데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드디여 2년만에 우리의 첫 전기기관차가 힘찬 고고성을 온 세상에 터치였다.

1961년 8월 30일, 우리 로동계급의 손으로 만든 전기기관차를 보아주시려 공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내선에 위용있게 올라선 전기기관차에로 다가서시였다.

몸체가운데 흰띠를 두르고 푸른색과 회색으로 깨끗하게 도장을 한 전기기관차를 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전재윤을 비롯한 설계가들과 로동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그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며 기관차의 이름을 《붉은기》호라고 하자고, 그리고 기관차의 앞머리에는 휘날리는 붉은 기발을 만들어붙이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붉은기》호 전기기관차!

진정 그것은 자력갱생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업을 건설한 조선의 정신, 조선로동계급의 의지와 담력을 보여주는 위대한 창조물이였다.

× × ×

1988년 9월 전국영웅대회를 앞두고 로력영웅이 된 전재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첫 《붉은기》호 전기기관차 생산자들을 자력갱생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셨다고 하면서 그이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의 중간페지를 펼쳐드는것이였다.

《평범한 수리기지에 지나지 않았던 자그마한 공장에서 우리가 전기기관차제작에 달라붙었을 때 외국의 한 대사는 조선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다.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만들어낸 〈붉은기〉 1호는 그 경쾌한 기적소리로 대사의 예언을 가볍게 짓눌러버리였다.》

회고록의 구절구절에 실려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을 되새기는듯 잠시 말이 없던 전재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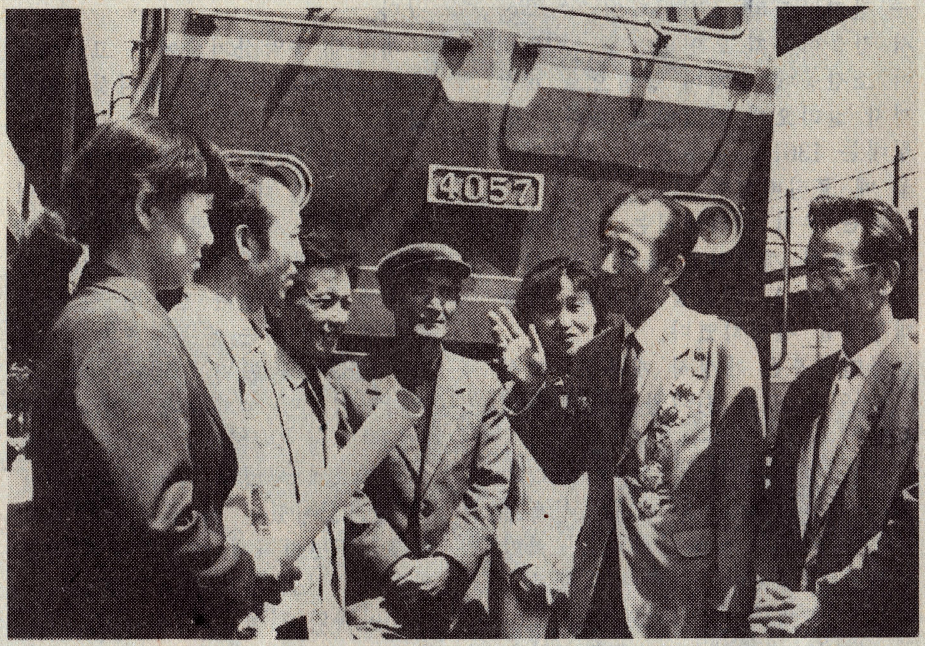
《그때 우리가 **김일성**동지께서 심장깊이 심어준 그 자력갱생을 좌우명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전후 빈터우에서 자동차, 뜨락또르, 전기기관차들을 만들수 있었고 짧은 기간에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었겠습니까.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우리 민족을 빛내이는 길이라는것은 우리 혁명의 력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전기기관차의 푸른색바탕과 어울려 그의 얼굴은 격렬한 환희를 자아내며 다함없는 자랑과 긍지가 어리여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창조물들의 탄생과 더불어 위대한 시대의 중심에 서있는 력사의 주인공들의 장엄한 모습을 부각시켜주고있었다.

본사기자 김금숙



첫 전기기관차를 설계하던 그때를 회고하는 전재윤(오른쪽 두번째)

개 성 시 (3)

개성은 거의 500년동안 우리 나라 판도우에 존재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로서 력사유적들이 많다. 이 력사유적들은 통일국가로서 번성하여 이름을 떨친 그때의 발전모습과 함께 고려인민들의 창조적 재능과 지혜를 찾아볼수 있게 한다. 지금 세계인민들이 우리 나라를 가리켜 《코레아》, 《까레야》라고 부르는것도 고려라는 표기에서 나온것이다.

개성시의 송악산 남쪽기슭에 남아있는 만월대는 고려의 왕궁터이다.

왕건에 의해 918년에 건국된 고려는 이듬해 여기에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건설하였다.

만월대에는 왕이 정사를 보던 집인 회경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궁전들이 있었다. 그 면적은 125만평방메터이고 그 가운데서 궁성의 면적이 약 39만평방메터에 달하였다.

왕궁동쪽에는 태평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이 정자의 지붕은 값비싼 고려청자기와로 이어져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유명한 청자기와는 전라남도의 조선남해안 지방에서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을 동원하여 소잔등에 싣거나 등짐으로 개성까지 날라오게 하였다고 한다. 만월대는 1361년 홍두군이 침입하였을 때 불타버렸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왕건왕릉을 훌륭히 개건하고 올해 1월 31일 그의 생일 1,117돐을 계기로 왕릉개건식을 진행하였다.

공민왕릉은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에 있는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의 무덤이다.

현릉(왕의 무덤)과 정릉(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놓인 공민왕릉은 우리 나라에서 쌍릉형식으로 제일 완성된 무덤이며 여러가지 돌조각들이 구색에 맞게 배치되여있는 일종의 《석조예술박물관》이다. 이 릉은 왕비가 먼저 죽자 공민왕자신이 직접 지휘하면서 1365년부터 1372년까지 건설한것이다.

무덤구역은 동서로 긴 세 장방형 층단과 그 아래 비탈진 단으로 이루어졌다. 릉의 제일 밑에서 맨우 1층단까지의 높이는 15메터이다. 동서 40메터, 북남 24메터인 1층단중앙에는 현릉과 정릉이 놓였는데 무덤무지의 높이는 약 6.5메터, 그 대각직경은 13.7메터이다. 무덤무지 밑둘레에는 쥐, 소, 범, 토끼 등 12지신상을 부각한 병풍돌들이 둘러서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공민왕무덤의 돌조각들을 보시면서 이 조각이 얼마나 훌륭한가, 참으로 우리 선조들의 재간이 대단하다고 교시하시였다.

공민왕릉은 저들의 권세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죽어서도 누려보려는 봉건통치배들의 끝없는 욕심에서 수많은 재물을 들이고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만든것이다. 그러기에 옛기록에 이 무덤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탕진되여 당시의 국고가 텅 비였다고 전하고 있다.

개성시 송악산기슭에는 고려때의 유교교육기관이였던 고려성균관이 있다.

원래 이 건물은 11세기초엽에 고려의 별궁인 대명궁으로 건설되였다. 외국의 사신들을 류숙시킬 때에는 순천관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이후에 유교경전과 관련한 일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숭문관으로도 썼다. 1089년에 여기에 당시 최고교육기관이였던 국자감이 옮겨오고 1310년부터 그 이름을 성균관으로 고쳐부르게 되였다. 임진조국전쟁때 불타없어졌던 이 성균관은 1602년부터 8년사이에 옛모습대로 복구되였다.

20여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성균관은 고려시기 국가최고교육기관의 전형적인 면모를 실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은 고려성균관(대학)으로 발전하여 개성시의 경공업종합대학으로 되고있다.

선죽교는 개성시 선죽동 로계천에 놓여있는 돌다리이다.

고려왕조의 《충신》이며 이름난 유학자인 정몽주가 정권을 탈취하려고 음모하던 반역자 리성계에게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리성계가 보낸 자객에 의하여 이 다리에서 피살된것으로 전해오고있다.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여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이 시가는 정몽주가 죽기전에 남긴것인데 봉건왕조에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그의 지조가 담겨져있다.

선죽교는 본래 선지교라고 불리웠다. 그러던것을 정몽주가 피살된 날 밤 다리옆에 참대가 솟아났기때문에 다리이름을 《선죽교》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물론 참대에 대한 이야기는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에게 참대처럼 굽히지 말고 봉건왕조에 《충성》다하라고 꾸며낸것이다.

화강석으로 된 이 다리는 1216년이전에 놓은것이며 란간은 정몽주의 후손들이 1780년에 덧붙인것이다.

선죽교부근에는 정몽주와 관련한 비석들과 표충비 등의 유적들이 있다.

선죽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나라 돌다리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의 하나로서 고려때의 석조건축술을 대표하고있다.

왕건왕릉, 공민왕릉, 고려성균관, 선죽교 등 개성에 있는 수많은 유적들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훌륭한 국보로서 지금 잘 꾸려지고 그대로 보존되고있으며 근로자들과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의 유람관광지로,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권오식

만월대 층계단





공 민 왕 릉 의 문 무 관 상

선죽교





표충비

공민왕릉 전경



금강원동기합영회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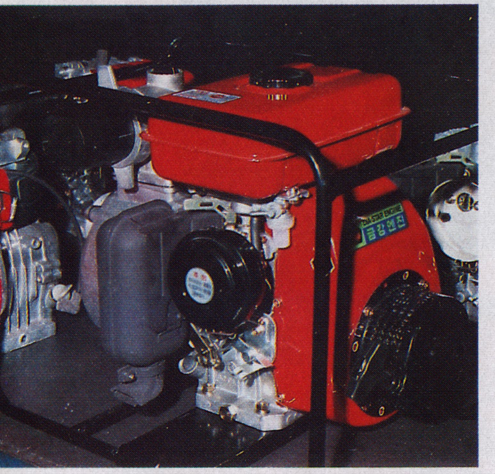




800톤가압주조기의 가공



원동기의 모형



원동기의 자동시운전



일손을 다그치는 조립작업반원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원동기들은 해외에도 수출된다.

조선동해의 아름다운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의 중심거리에 금강원동기합영회사가 자리잡고있다.

우리가 이 회사정문에 이르니 진한 암갈색바탕에 금색초필체로 부각한 《금강원동기합영회사》라는 간판이 첫눈에 시원히 안겨왔다.

때마침 정문으로 《금강엔진》이란 상표가 붙은 원동기들을 가득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 나오고있었다.

해외동포들에게 이곳 회사를 소개하려 한다고 하니 일군들이 우리를 무척 반겨맞이하였다.

넓은 부지에 푸르싱싱한 록지들과 단층, 2, 3층 건물들이 규모있게 들어앉은 회사는 마치 어느 한 휴양소를 방불케 하였다. 정원의 수삼나무, 소나무, 해당화 등 갖가지 나무들과 꽃들이 숲을 이루고 더우기 감나무아지마다 열매가 주렁져 회사는 이채를 띤 풍치를 보여주었다.

이곳 과장 리우택은 회사의 운영실태를 들려주며 우리를 생산현장으로 안내하였다.

아담한 단층건물인 주물직장에 들어서니 마침 고주파유도로에서 흘러나오는 용해물로 원동기의 주물품들을 연방 부어내고있었다. 판성차, 펌프본체, 날개 등 주물품들이 흠집하나 없이 닭알처럼 매끈하게 나오고있었다. 해마다 생산계획을 질량적으로 넘쳐 끝낸 이곳 주물직장은 이미 오래전에 3대혁명붉은기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300톤짜리 복동프레스를 모체로 여러가지 형단조기계들이 있는 프레스직장에서도 원동기와 소형양수기의 소재들을 련속 찍어내고있었다.

과장은 원동기와 같은 계렬생산지표의 부분품생산에 거의다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도입하였기때문에 제품이 견고하고 질이 높다고 하면서 회사의 모든 생산설비들이 자동화, 현대화 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가공직장에서 더욱 느낄수 있었다.

150톤, 300톤, 800톤 짜리 가압주조기들과 100여대의 각종 금속절삭기계들이 들어찬 가공직장은 회사의 심장부와도 같았다. 조작공들의 지령에 따라 로보트화된 가압주조기들이 기관본체와 옆뚜껑, 머리부 등 부분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흐름선을 따라 절삭공정으로 넘겨지고 가공된 완성품들이 지체없이 조립직장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조립직장에 들어서니 원동기조립공들의 날랜 일솜씨도 그렇지만 완성된 수천대의 원동기가 줄지어 있는것은 더욱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어느 직장이나 할것없이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의 얼굴마다에 창조와 로동의 기쁨으로 희열이 넘쳐흘렀다.

《금강》호 원동기의 시운전대를 떠나면서 과장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논농사가 기본인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의 가장 힘겨운 로동의 하나가 손으로 모를 내는 일이였다.

《하지만 모내는 일까지 기계로 할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꿈속에서조차 생각할수 없었지요.…》 과장의 말이였다.

우리 농민들을 가장 어렵고 힘든 모내는 일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주시려고 오래전부터 구상해오시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3월 17일 원산수산기계공장을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4마력짜리 원동기는 기름도 적게 들고 참 좋은 기계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 원동기를 자체로 개발하여 모내는 작업과 과수원분무작업, 소형범선들을 기계화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원동기를 전문생산하는 공장을 전망성있게 새로 짓도록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년어간에 원산시의 중심에 2만여평방메터의 원동기생산기지가 새로 꾸려지고 수만대의 원동기를 생산하여 전국의 농촌들에 보내주게 되였다.

농사철이면 우리 나라 농촌 그 어디에 가나 논판마다 벼모내는 기계, 논김매는 기계, 모뜨는 기계, 농약뿌리는 기계들을 움직이는 《금강》원동기의 경쾌한 동음소리를 듣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 회사의 원동기가 수천년동안 조상대대로 농민들이 허리굽혀 손으로 모를 꽂고 김을 매던 힘겨운 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할수 있지요.…》

과장의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공화국의 륭성번영의 성업에 한몸바치려는 총련의 애국적상공인들이 물심량면으로 이 공장을 지원하여왔다.

몇해전부터 총련산하 대영기계주식회사와 합영하고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원동기들이 대외시장에도 많이 나간다고 한다.

우리는 나라의 농촌경리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원동기가 더 많이 생산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회사를 떠났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강철

흰잣나무

우리 나라에서 흰잣나무(흰씨잣나무)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린산군의 잣나무숲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한그루의 흰잣나무는 37년생이다.

이 나무 높이는 10메터, 가슴높이의 직경은 36센치메터, 땅우로부터 2메터우에서 5갈래의 굵은 줄기가 뻗어오른다.

이 나무에는 보통잣나무에서와는 달리 껍질색이 희면서도 연한 붉은색을 띤 씨앗이 맺힌다.

여기로부터 그 이름도 《흰잣나무》로 부른다.

이 나무의 씨앗은 보통잣나무의것보다 껍질의 두께가 평균 0.3미리메터가 더 얇다.

따라서 속살도 1.25배나 더 많다.

씨앗수확량은 보통잣나무보다 1.5배 더 높다.

씨앗껍질이 얇아 가공하기 편리하고 속살이 크고 수확량이 많아 경제적으로 가치있다.

우리 나라 산에는 머지 않아 흰잣나무숲이 무성해질것이다.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묻는다

원자탄이 무엇에 필요한가

우리 나라의 동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원산시 장덕동에는 원자탄 피해자인 쉰여덟살의 김송미녀성이 살고있다.

얼마전에 우리는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때로부터 근 반세기가 되여옵니다.

그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김송미녀성은 거의 일생을 고통속에서 살고있는데 지금도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있으리라 봅니다.

김송미：나에게는 1975년도에 일본에서 발급한《피폭자건강수첩》이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원자탄피폭당시 내가 아홉살이였고 원자탄이 투하된 폭심으로부터 1.5키로메터지점에 있었다는것과 피폭자구분에서 제1호로 인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것이 명기되여있습니다.

세계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미제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떨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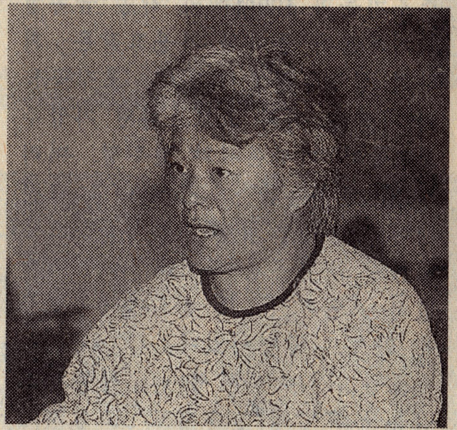
20여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히로시마의 대참상이 빚어진 그날도 여느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보통날 아침이였습니다.

남새장사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던 어머니는 그날 아침 일찌기 남새를 받으러 히로시마교외에 나갔고 두 녀동생은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가에서 동무들과 만나는 순간 눈앞에서 섬광이 번쩍이고 무엇인가 나를 콱 덮치는것만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송미

이틀후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나는 마치 그 어떤 악몽과 같은 환각속에 헤매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이 폐허와 주검 뿐이였기때문입니다.

다정한 동무들, 친근한 이웃들을 영영 볼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슨 조화를 입어 이렇게 달라졌을가.

불안, 공포, 너무도 무서운 참상을 두고 나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20여만명의 주검속에 나의 어머니와 두 동생도 있었습니다.

기자：원자탄피해를 입은 녀성으로서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고 짐작되는데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송미：녀성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들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자탄피해를 입은 녀성은 그것을 바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탄피해로 생긴 병은 불치의 병으로 되고있기때문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녀성이 자기가 가정의 짐이 되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된다면 그 이상 큰 아픔과 괴로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들은 꿈을 버리고 생활을 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래일이 없는 절망, 그들에게 삶의 보람이란 무엇이겠어요.

설사 가정을 이룬 녀성이라 할지라도 그는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원자탄병이 자식들의 인체에서 발병되여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자식들이 크면클수록 불안도 커가고 증대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언제 자기의 인체와 마음 속에서 2중폭발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 위험을 안고 한생을 살아온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나는 피폭자 한 녀인이 30대에 검은 머리가 말짱 흰머리로 세여버린것을 보았습니다.

기자：우리는 김송미녀성이 내외의 여러 출판물과 텔레비존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할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송미：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미제의 원자탄에 의해 죽은 우리 동포들이 오늘은 일본당국자들에 의해 두번다시 죽음을 당하고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동포들의 육체를 죽였다면 일본은 고인들의 정신을 죽이고 모독하고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말입니다.

조선사람들이 원자탄피해를 입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이것을 일본당국에 묻고싶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동포들을 징용과 징병, 《종군위안부》로 일본땅으로 끌어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원자탄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일본당국은 이에 대해 응당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사죄와 보상 문제가 정치문제이면서 인권문제, 도덕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응당 사죄하고 보상하여주는것이 사람들의 초보적인 도덕이고 례의가 아닙니까.

오늘 일본의 어떤 사람들은 일본민족의 《월등》에 대해 떠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전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인민들속에서 일본이 저렬한 나라라는 비난이 비발치듯하는데 그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리해가 갑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악이 오늘날 반성과 청산이 없으면 오늘의 죄악으로 부상되며 오늘 씻지 않은 죄악은 래일 후손들의 치욕으로 됩니다.

선대가 지은 죄악으로 후대가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지요.

기자：오늘 세계는 일본의 핵무장화를 두고 크게 우려하고있는데 그에 대해 생각되는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김송미：나는 밤마다 악몽으로 시달림을 받고있습니다.

머리우에서 원자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모든것이 폐허로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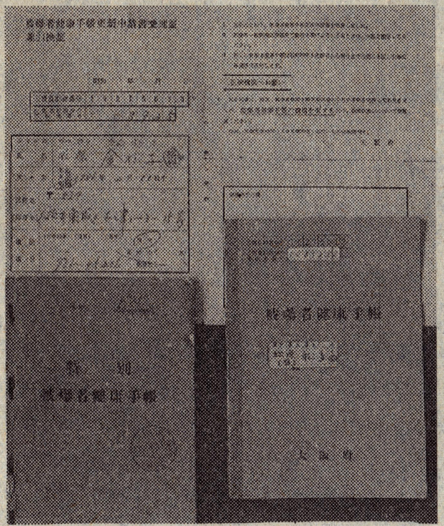
무서운 꿈속에서 깨여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듭니다.

원자탄의 폭발로 인한 심리적타격이 컸고 그로부터 오는 후과가 너무도 집요하고 검질기게 나의 건강을 해치여 나는 늘 불안과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많은 원자탄피해자들도 나와 같은 처지일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4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생활의 모든것을 일시에 파괴하여버린 원자탄.

이 참혹상은 현세기 원자탄이 인



김송미의 《피폭자건강수첩》

류에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일본은 원자탄의 첫 피해국이며 그 피해가 어떠한가를 체험한 당사국입니다.

일본은 마땅히 지구상에서 원자탄, 모든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원자탄제조의 원료인 방대한 플루토니움을 비축하면서 핵대국의 길로 줄달음치고있습니다.

나는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묻습니다.

원자탄이 무엇에 필요합니까.

나는 일본당국자들이 원자탄에 한줌의 재가 되여 저세상에 간 40만의 령혼들과 그리고 오늘날까지 원자탄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 자손들에 대하여 잊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범청학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략칭 《범청학련》)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올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맹세한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학생들의 조직적련합체이다.

《범청학련》은 1992년 8월 15일 제2차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대표들의 참가하에 개성시 판문점에서 결성되였다.

《범청학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행동강령으로 삼고있다.

《범청학련》은 각 지역에 본부들이 있고 의장, 공동의장들을 두고있다.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북측본부 의장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현재《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의장이 남측본부 의장으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재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이 해외본부 공동의장으로 되고있다.

《범청학련》은 흰색바탕에 조선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이 굳게 손을 잡은 모습을 새겨넣은 기발과 통일열기로 차넘치는 애국청년학도들의 피끓는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반영한 노래 《범청학련가》를 가지고있다.

《범청학련》에 대한 겨레의 기대는 크다.

통일조국의 주인공들이며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역인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학생들은 《범청학련》의 기치아래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들의 사명과 임무를 반드시 빛나게 이룩할것이다. 올해는 《범청학련》이 결성된지 2돐이 되는 해이다.

반통일대결《정권》

남조선의 김영삼《정권》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인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두려워하며 각방으로 가로막는 반통일대결《정권》이다. 남조선《정권》의 이러한 반동적성격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최근 한달동안에 한 언행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우리 겨레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 김영삼은 《비상령》발동으로 괴뢰군의 총부리를 동족의 등뒤에 돌리도록 하였으며 《북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어떤 《상황에도 적극 대처할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갖추라》고 떠들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왔다.

최근 반북대결소동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94륙군군수전쟁연습》을 비롯한 북침전쟁불장난을 벌리는 한편 우리의 면전에서 매일같이 중무기들과 무장악당들을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군사적도발을 일삼고있다.

그들은 민족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북의 동족과 슬픔을 함께 하려 한 사람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을 우리와 결부시켜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누를길 없어 도처에서 정중히 조의를 표시하고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대자보를 내붙이였을뿐아니라 조의대표단을 파견할것을 주장한데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인륜도덕의 견지에서 보나 북남 화해와 단결, 통일의 견지에서 보나 응당한것이며 누구도 범죄시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들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북에 대한 《동조세력》, 《내부의 적》을 《척결》한다는 구실밑에 《신공안통치》의 칼바람을 몰아오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파쑈폭압력량이 총발동된 가운데 자주, 민주, 통일 력량에 대한 초토화작전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반공대결소동으로 하여 모처럼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흐르던 조선반도정세는 또다시 대결국면에로 되돌아서고있다.

김영삼에게 인간으로서의 도의나 민족으로서의 량심이 털끝만치라도 있다면 민족의 불상사를 이용하여 우리를 자극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망동은 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김영삼은 《문민》간판을 걸고서도 선행한 군부독재세력보다 더 못된짓만 골라하고있으니 이런 반역의 무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반공대결소동을 미친듯이 벌려왔다.

4.19인민봉기후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분렬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일떠서자 5.16《군사정변》을 일으켜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로 인민들의 통일열기를 짓뭉개버린것이 남조선《정권》이였다. 1970년대초 북남대화가 시작되고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을 계기로 통일기운이 높아지고있을 때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한 허위선전을 요란스럽게 벌리고 《긴급조치》요, 《비상계엄령》이요 하는것을 련발하면서 《유신헌법》을 꾸며내여 인민들의 통일지향을 야수적으로 탄압해나선것이 또한 남조선《정권》이였다. 《유신》독재자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후 남조선에서 민주화의 봄이 태동하고 인민들의 통일열기가 비등되고있을 때 한개 도시에서만도 수천명의 동족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남조선《정권》의 죄행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문민》을 광고하는 현 집권자들은 북남대결을 추구하는데서 선행한 《정권》보다 더 악랄하다.

김영삼이 집권초기 《그 어떤 외세도 동족보다 나을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반민족적인 군사파쑈독재를 계승한 《문민정권》의 반동적체질을 미화하고 저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얼림수였다.

김영삼은 력사적인 북남합의서가 채택되여 온 겨레가 통일을 가까이 내다보게 된 때에 외세와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을 재개하여 조선반도정세를 합의서채택이전의 대결국면에로 몰아갔다.

이 반역집단은 있지도 않는 북의 《핵의혹》에 대해 떠들며 동족에 대한 《국제적제재》를 성사시켜보려고 별의별짓을 다하였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해 날로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90년대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위정자들의 반공대결소동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영삼은 남조선의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북남대결을 추구하는데서 살길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파멸의 길이다.

력사적사실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대결국면에로 돌려세우고 나라의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며 우리와 엇서나간자들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지 않은자가 없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민》감투를 쓰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던자들이 그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군부독재자들보다 더 악랄히 대결을 추구하는것은 벌써 그들의 비참한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예고하고있다.

민족의 버림을 받은 현 남조선《정권》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비도덕적인 처사

(범민련 해외본부 글 발표)

온 겨레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몸부림치고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자들이 폭압선풍을 일으키며 비인간적이며 몰상식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범민련 해외본부는 지난 7월 28일 이를 단죄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분단 49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기쁜 소식에 접하여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안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김일성**주석께서 급서하심으로 인해 정상회담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대하여 해내외동포들과 세계각국의 저명인사들이 한결같이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있는 마당에 남측당국이 벌린 비인간적이며 몰상식한 적대행위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의 길로 나갈것을 갈망해온 7천만 겨레에게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야기시킨 처사였다.

남과 북이 정상회담에 합의한것은 쌍방이 오랜 불신과 대결에서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화해와 단합의 길로 함께 나간다는 선언이였을것이다. 그런데 력사적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한쪽에 뜻하지 않는 유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하여 마땅히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상대방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는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나 민족적인 견지에서 보나 당연한 례의이며 도리일것이다.

그러나 남측당국은 **김일성**주석의 서거소식이 전해지자 서둘러 전군에 《특별경계령》을 선포하는 한편 각지의 경찰에는 《갑호비상령》을, 공무원들에게는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전시를 방불케 하는 비상태세를 갖춤으로써 온 사회에 불안을 조성케 하였다.

이는 남측당국이 여전히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에로 몰아가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고수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심지어 남측당국은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애도하여 조문단을 파견하려는 각계각층 민중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여 학생들의 독자적인 추도행사와 범민련 남측본부의 조의방북거사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둘러싸고 《국무총리》이름으로 《정부립장》까지 표명하면서 반북대결소동을 광적으로 벌리고있는 남측당국의 오만무례한 태도에서는 허심탄회하게 회담에 림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털끝만치도 찾을수 없으며 오로지 틈만 있으면 상대방을 치려는 적대적이고도 도발적인 자세만이 엿보일뿐이다.

상대방이 가장 큰 슬픔과 아픔에 잠겨있는 시기를 노려 여느때보다도 대결적인 자세로 사태를 긴장시키고있는 남측당국의 비도덕적인 처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단결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시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로서 남과 북, 해외 7천만 겨레의 준엄한 민족적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측당국은 외세에 빌붙어 동족과 대결함으로써 민족의 통일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외면해온 력대《정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라졌는가를 심각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남측당국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온 겨레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고 부당하게 구속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을 즉각 석방함으로써 화해와 단합으로 나갈것을 갈망하는 7천만 겨레의 간절한 요망에 진심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범민련 해외본부는 남측당국이 례의를 갖추어 조의를 표하고 진지한 자세로 정상회담에 림함으로써 7천만 겨레의 통일념원에 호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족의 수치

(범청학련 중국지역본부 의장 담화 발표)

범청학련 중국지역본부 류창환의장이 남조선반역도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지난 7월 3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7천만 겨레는 물론 온 세계 인민들도 애석함을 금치 못하며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는데 유독 김영삼일당만은 조의를 표하기는커녕 도리여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추모행사를 총칼로 탄압하는 망동을 부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하였다.

이는 민족에 대한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이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리시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동족압살에 혈안이 되여 광분하던 김영삼역도에게도 립공속죄할 기회를 주시며 만나주시려 하여 온 겨레에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마련해주시였던것이다.

그이의 이렇듯 위대한 품성에 보답은 못할망정 하늘이 내려다볼 죄악을 서슴지 않다니 이런 배은망덕하고 례의범절도 모르는 패륜패덕아는 이 세상에 더 없을것이다.

그는 김영삼역도와 같은 무지막지한자가 권좌에 올라앉아 《민족》이요 《통일》이요 뭐요 하며 돌아치는 그 자체가 민족의 수치라고 말하였다.

그는 하루빨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안아오려면 한치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인간륜리도덕마저 상실한 인간찌꺼기인 김영삼일당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신왕의 인질을 살려준 광개토왕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고국양왕의 아들로 출생하여 12살에 태자로 되였으며 18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가 왕위에 오른 시기는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고구려는 369년 치양(황해남도 배천)전투이래 백제와 여러차례 싸움을 벌리였다. 백제는 싸움에서 패하고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나 그 맹세를 항상 지키지 않았다.

광개토왕이 왕위에 오른지 아홉해가 되던 399년이였다.

왕은 군사를 이끌고 당시 수도였던 집안을 떠나 평양에 도착하였다. 한창 물이 올라 풍만하게 부풀어오른 봄날의 버들개지마냥 온몸에 패기와 정열이 흘러넘치는 청년왕, 그때 그의 나이는 스물일곱살이였다.

그가 직접 평양으로 오게 된 목적은 백제 아신왕의 비렬한 배신행위를 추궁하고 징벌할것인가 말겠는가 하는 결심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백제는 워낙 믿기 어려운 나라이지만 그래도 고구려의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왕은 이번에 직접 행차하여 아신왕의 반성정도에 따라 무마하거나 진압할 작정을 하였다.

백제 아신왕은 북쪽 고구려의 위용앞에 감히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못하고 틈만 생기면 생쥐가 벽을 쏠듯 살금살금 변강을 쳐들어와 소란을 피우군하였다.

그럴 때마다 고구려는 대국으로서의 자세를 지켜 참을성있게 백제를 무마해왔던것이다.

어느날 광개토왕은 대동강가에 나갔다. 3년전 여기서 아신왕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영원한 속국이 되겠노라 애걸하였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강기슭을 거닐었다. 아신왕이 그 언약을 버리고 또 도전해나선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덤벼든단말인가?!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제라도 당장 군사를 풀어 한걸음에 멸망시켜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격해지는 감정을 애써 눌렀다.

왕이 오래동안 침묵속에 무거운 걸음으로 강기슭을 오락가락하니 뒤따르던 신하들도 몹시 긴장해졌다.

특히 세해전에 아신왕이 자기의 맹약을 담보하여 인질로 보낸 그의 아우이며 내신좌평이였던 홍의 얼굴은 벌써 새까맣게 질려있었다.

전배와 후배를 그쯘히 갖춘 대행렬도 아닌 단출한 행차이긴 하지만 왕의 조용한 걸음앞에서 홍은 기를 펼수 없었다.

자기 형의 죄를 다스리려고 왕이 직접 행차했으니 백제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것이나 다름없고 자신의 운명도 불보듯 뻔하였기때문이였다. 인질의 운명이란 자고로 본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하루아침에 오가는 바람처럼 갈래없이 오르내리는것이 아닌가.

배신과 더불어 칼도마우에 오르는 첫 희생자는 두말할것 없이 인질인것이다. 이런 경우 인질의 목숨이란 왕의 결심에 따라 처리된다. 하물며 세해전 이 대동강가에서 한 맹약을 지키지 않은 형 아신왕을 징벌하러온 대왕이 오늘 바로 그 기슭을 저렇듯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걷고있으니 저 침묵이 끝나면 필연코 나의 운명도 결정되리라.…

홍은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드는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왕의 뒤를 쫓았다. 평양성태수도 조심스럽게 뒤따르고있었다. 태수는 체격이 우람하고 호걸스러운 무사이지만 이런 때는 왕에게 말조차 변변히 못비쳐본다. 태수는 원래 광개토왕이 태자로 있을 때 그의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술을 련마시켜준 교사로서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오랜 사람이다. 헌데 그도 저렇듯 조심스레 뒤따르는걸 보면 왕의 심중이 참으로 복잡한것 같다.

황이 든 마가을 락엽도 초조하고 각박한 홍의 심정을 잘 아는듯 침묵속에 잠긴 대왕의 발걸음앞에 한잎두잎 떨어져내렸다. 하건만 왕의 기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지금 강가의 옛 전장을 거닐며 그때를 회고하리라 생각한 홍은 불안한 마음으로 세해전의 일을 더듬어보았다.

…백제의 아신왕은 군사를 풀어 평양성을 치게 했다. 그 싸움에 그는 왜인들까지 끌어들였다. 아우인 홍자신도 형의 결심에 추종하여 내신좌평으로서 전장에 나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다녔었다.

충돌이 불가피해지자 그 너그럽던 광개토왕도 더는 참을수 없었던지 7천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동강가에 나왔다.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백제의 58개 성을 련달아 격파하고 백제의 수도에 육박하였다. 례성강하구 남안지역까지 쳐나갔다. 결국 백제는 경기도 양주의 아차산일대와 한강의 광나루 북쪽기슭 관미성(인천지방)을 잃었다. 당황한 백제왕은 남녀 1천명과 가는베 1천필을 바치면서 광개토왕앞에 항복하고 이제부터는《고구려국왕의 영원한 노객(노복)이 되겠습니다.》하고 엄숙히 맹세하였었다. 그리고 아우인 홍과 자기의 대신 10명을 인질로 삼아 고구려의 수도로 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홍의 뇌리에는 그때 자기를 인질로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던 형의 가련한 모습이 떠올랐다.

《내 다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않을테니 부디 안심하고 가있거라. 우리 나라가 신의를 지켜 맹약을 수행하면 대국인 고구려에서 너를 꼭 돌려보내줄게 아니냐.》

형의 떨리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그런데 그렇게도 애걸복걸하며 굴복했던 형이 돌아앉자마자 배신하여 태자인 전지를 왜땅에 파견하여 군사를 징발하게 하고 《노객》으로서 늘 조공하던것도 소홀히 하다니? 게다가 고구려의 변경을 침범하여 왕을 노엽혔으니 이제 어떻게 될것인가?

문득 왕이 걸음을 멈추었다. 따르던 모든 신하들도 바싹 긴장해졌다. 홍의 불안한 상념도 동강났다.

강기슭을 치는 잔파도우에 물오리떼가 깃을 치며 날아와 앉는다. 출렁이는 파도에 실려 물우에 솟았다잠겼다 하는 물오리떼에 눈길을 세운 왕은 순간 백제의 아신왕이 저 물오리떼처럼 잔꾀를 부려 우리 고구려를 홀시하고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

왕은 전통에서 화살을 뽑아 시위에 먹이고 물오리를 겨냥한다.

홍은 그 부리부리한 눈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가슴에 시퍼런 비수처럼 와 박히는것 같았다.

(아, 나의 목숨은 이제야말로 촌각에 달렸구나. 그것도 3년전 인질이 되여 눈물을 흘리며 넘어온 이 대동강가에서…)

허나 왕은 서서히 활을 내리더니 화살을 도로 전통에 넣는다. 아마 쏘기를 그만두려는 모양이다.

《홍은 짐의 말을 잘 가려서 듣거라. 너의 형 아신왕은 우리 고구려를 배신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너를 처단할 권리를 가지고있노라. 허지만 짐은 그럴 생각이 없노라. 갑옷투구에 창검을 갖추지 않은 적을 해함이 대장부의 행할바가 아니니 그대의 목숨은 다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번 백제정벌에서 짐은 너를 짐의 스승이며 선배인 저 백전로장 평양성태수와 함께 좌우에 대동하려고 하노라. 헌즉 너는 배신자 아신왕의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되리라.…》

홍은 거치른 전장에서 목이 쉰 왕의 위엄있는 석쉼한 목소리를 듣고 그만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대왕님께서 베푸시는 대해같은 은덕 실로 막급하와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짐의 그것은 다만 은총이 아니노라. 한겨레로 태여난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될 처지가 아닌고. 너의 목숨도 그래서 구원된줄 알아야 할것이로다.》

그 말에 홍은 연방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 신라의 나물왕이 보낸 사신이 왔다. 광개토왕은 나물왕의 사신과 함께 고구려왕궁에 머물러있는 신라왕정의 인질 실성(그는 후에 고구려에서 돌아가 신라의 18대왕으로 되였다.)도 불러들이였다.

그들이 가져온 신라 나물왕의 편지에는 왜인들이 신라국경에 쳐들어와 성들을 격파하여 나라가 위태로우니 구원해주기를 간절히 청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광개토왕은 나물왕의 국서에서 신라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다는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언제나 오그랑수를 곧잘 써오던 신라왕이 급히 구원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여왔기 때문이였다.

광개토왕은 한피줄을 나눈 겨레의 나라인 신라가 왜적에 의하여 존망을 가늠키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백제를 정벌하기에 앞서 몇해동안 신라에 군사를 보내여 왜적을 몰아내게 하였다.

…

그 과정을 지켜본 백제의 인질 홍은 대고구려 임금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도전한 자기 형의 처사가 더욱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홍은 자기가 가장 믿는 심복에게 편지를 주어 누구도 모르게 백제로 떠나보냈다. 그 편지에는 고구려의 웅건한 통합지향에 호응할것을 아신왕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후 백제는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고구려에 의하여 계속 밀리우게 되였다.

고구려는 광개토왕에 의하여 광활한 령토를 가진 동방최대의 강국의 하나였다.

광개토왕은 국토통합과 겨레의 화목을 위해서는 이처럼 참기 어려운 묵은 감정까지 대범하게 털어버렸던 대고구려의 왕이였다.

본사기자



명인소개

솔거

솔거는 삼국시기 신라가 번영하던 때인 6세기후반기부터 7세기전반기에 창작활동을 벌린 유명한 화가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력사적사변들을 기록한 책 《삼국사기》에는 한사람의 화가 이름만이 기록되여있는데 그가 바로 솔거이다.

솔거는 워낙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벼슬에 오르지 못하였기때문에 그의 생애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있다.

기록에 의하면 솔거는 미천한 농가에서 출생하였지만 어려서부터 령리하고 똑똑하였으며 인물도 잘생기여 보는 사람마다 앞날에 훌륭한 사람이 될것이라고 칭찬하군하였다고 한다.

솔거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취미와 재간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살림이 구차한데다가 산간벽촌에서 살았기때문에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을수 없었으며 또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재료도 구할수 없었다.

가난한 집살림을 돕기 위해 그는 7~8살나이에 벌써 일을 시작하였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할 때면 나무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그 모습을 땅우에 그려보기도 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쉬는 때면 호미끝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나 소, 풀 같은것을 흙우에 그려보군하였다. 그는 그린 그림을 발로 지우고는 또다시 그리면서 그림그리기를 열심히 해나갔다. 칡뿌리로 바위에 그림을 그리고 나무꼬챙이로 땅우에 그림을 그리며 그는 어느 하루도 그림그리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려보는 꾸준한 노력속에서 그림솜씨가 늘었고 유명한 화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는 마침내 당시 신라에서 으뜸가는 화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였다.

솔거의 그림은 생동하고 참신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어느날 솔거는 신라의 이름난 절간인 황룡사벽에 소나무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곧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 소나무는 벽면 아래우를 다 차지하는 큰것이였다.

솔거는 정성을 들여 그림을 완성하였다. 그 그림이 오늘날에도 명화로 전해지고있는 《로송도》인것이다.

그림으로 그린 소나무는 굵은 가지가 꾸부러져 뻗어있는 풍상고초를 다 겪은 늙은 소나무였다. 소나무의 몸뚱이는 룡의 비늘같이 꿈틀거리는듯, 푸른 잎사귀는 살아 바람에 흔들거리는듯 너무도 생동하여 멀리서 뭇새들이 그 소나무를 찾아 날아오군하였다.

그 벽화밑에는 그림을 산 소나무로 잘못 알고 찾아왔다가 벽에 부딪쳐 떨어져 죽은 새들이 수두룩하였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후에 그 벽화의 색이 낡아 희미해졌다.

그리하여 그 절간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초청하여 그림에 조심스럽게 색칠을 하였다. 소나무는 다시 생기를 얻고 푸르싱싱해졌는데 이상하게도 새들이 다시는 한마리도 날아들지 않았다.

솔거의 그림솜씨는 그토록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뛰여난것이였다.

이 설화는 솔거의 비범한 창작적기량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주는것이다.

솔거는 인물화분야에서도 뛰여난 솜씨를 보여주었다.

분황사의 관음보살상, 단속사의 유마상은 그의 대표작들이다.

이 벽화들은 그 화면구성과 인물들의 형상이 하도 생동하고 진실하여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절찬을 받았으며 보는 사람마다 《귀신의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8세기중엽에 한 녀인이 솔거가 그린 분황사의 천수관음보살앞에 가서 빌어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불교를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설화이지만 그의 그림이 후세에 내려오면서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전해오는 설화를 종합하여보면 솔거의 그림들이 사실주의적작품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자연경치를 주제로 하고 다양한 색채 그리고 원근법의 표현수법으로 그린 그의 그림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의 조선화가 일찍부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시기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풍경화가 독립적인 회화종류의 하나로 그려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고화

너럭바위

고화 《너럭바위》는 17~18세기 우리 나라 풍경화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한 사실주의적화가 정선의 그림이다.

정선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단 하루도 손에서 붓을 놓아본적이 없었으며 생의 마지막날에도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정선은 늙어서 눈이 어두웠을 때에도 안경을 두개씩 겹쳐쓰고 초불아래에서 그림을 그렸으나 티끌만한 착오도 없이 잘 그렸다고 하였다.

풍경화 《너럭바위》는 정선의 실경산수화작품에서 대표작의 하나이다.

화가는 수림이 울창한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넓고도 평평한 너럭바위와 아래쪽의 반석, 그 주위를 에돌며 세차게 흐르는 물결을 박력있게 묘사하였다.

물결흐름에서는 장쾌한 소리가 들려오는듯하다. 먼산은 쌀알처럼 점점이 찍어 대상을 묘사하는 기법을 씀으로써 수림이 무성한 산으로 보이고 짙은 먹으로 붓을 옆으로 눕혀 처리한 솔잎과 얼핏 보기에 되는대로 내려그은듯하게 처리된 줄기는 소나무밭의 생생한 모습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림에서는 단붓질에 의하여 자연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묘사해내는 화가의 개성적인 필법을 보여주고있다.

그림은 웅건하고 참신한 맛, 부드럽고 섬세한 감을 준다.

본사기자



